금주의 법구—〈선생자경〉
나쁜 벗이란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0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8일)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자리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내부 혁신동력 기틀 마련과 외부 사회평화 정착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원행 스님 "종단 혁신동력 기틀 마련"

1월 16일 첫 신년기자회견… 백년대계본부 재편

소통 · 화합 중심 7대 과제
종단안팎 과제 두루 설정

'화합과 혁신위원회' 구성
숲 종도 목소리 취합하고
남북불교교류 · 연대 통해
사회평화 정착 기여 계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새해, 종단 혁신동력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진한다. 백년대계본부를 재편해 본격적인 '싱크 탱크(Think tank)'를 가동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북불교교류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회 평화 정착을 주도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종무기조와 종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먼저 종책기조는 지난해 9월말 출범하면서 내세운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습니다'를 유지했다. 하지만 7대 종책과제로 △소통과 화합 △혁신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 등 전방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사안별 종도 의견 취합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안은 종단 혁신을 위한 밑작업인 백년대계본부 재편이다. 원행 스님은 백년대계본부가 단순히 종무활동을 펼치는 조직이 아닌 확실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원회를 꾸렸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화합과 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결집원력위원회'다.

화합혁신위는 승납 · 출재가에 관계없이 모든 종도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단 지도자급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해 온 ·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 각종 사안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이를 간담회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종단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목적이다. 문화창달위는 불교전통문화 개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백만원력위는 신행혁신과 보시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25년 전 우리 종단은 종단개혁불사를 통해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했다.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켰고, 종무행정을 체계화시켜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최근 종단서 일어난 갈등 상황은 1994년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크게 한 걸음 내딛어야 함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제36대 집행부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깃발을 들고자 한다. 백년대계본부를 미래불교 전략기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천명했다.

원행 스님의 이 같은 발표는 기존 백년대계본부가 종단의 미래과제를 도출하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아젠다 설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계종은 세 위원회의 출범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인사들이 기존 백년대계본부서 활동해온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종도들의 기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內 봉축점등식 추진

조계종이 백년대계본부 재편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면 대외적으로는 남북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양시내 봉축점등식 추진이다. 이는 이전 집행부에서 볼 수 없던 사업계획으로, 성사 시 불교계 남북교류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법사 파견과 시설건립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남과 북이 함께하는 연등축제 및 봉축법요식 봉행에도 힘을 쏟는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사찰 주위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회복하는 사업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승려복지제도 혁신 모색

또한 조계종은 출가수행자들의 안정적인 수행을 돕는 승려복지제도 확대에 나선다. 원행 스님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을 최우선 종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지원하던 국민연금보험료 1만8000원을 3만6000원으로 2배 늘렸다. 이는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에 해당한다. 또한 승려복지 기초조사 및 전산화, 승보공양 복지사 제도 도입, 정밀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중증요양시설 건립도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원행 스님은 "종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스님들의 의식주 문제 등 삶의 기본조건을 안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과 전법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스님들의 복지문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긴 어렵지만 조계종 승려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A3〉


고유환 김상겸 김상인 박명호
송일호 유국현 윤성이 이상일
이은기 조의연 허남결
〈등록후보 가나다 순〉

동국대 총장 선거 11명 '출사표' 역대 최다 후보 등록 기록

1월 16일 접수 마감… 내부 9명 · 외부 2명 접수해

18일 총추위서 대상자 결정
22 · 28일 소견 발표 · 토론회
1월 30일 최종 후보 선정
2월 7 · 8일경 이사회서 선출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로 11명이 등록했다. 총장 후보에 11명이 등록한 것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총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총 11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인사를 살펴보면 내부 인사 9명, 외부 인사 2명으로 확인됐다. 내부 인사로는 고유환(북한학) · 김상겸(법학과) · 박명호(정치외교학) · 송일호(경제학과) · 유국현(화학과) ·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상일(건설환경공학과) · 조의연(영어영문학과) · 허남결(불교학부) 교수가 등록했다. 외부인사로는 김상인 前 대덕대 총장,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상 가나다 순)

후보군으로 평가받았던 이윤호(경찰사법대학장) · 정창근(국제통상학과) · 홍승기(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은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반면 외부인사를 포함해 고유환 · 김상겸 교수는 새로운 후보 대상군으로 떠올랐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에 따라 최종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외부인사 1인을 반드시 추천토록 돼 있어 내부인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장 선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동국대 총추위는 1월 18일 지원자 자격심사 · 최종 후보자 수를 의결한다.

1월 22일에는 로터스 홀에서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가 있으며, 1월 28일에는 공개토론회가 동국대 총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이들 소견 발표와 공개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18일 총추위 · 22일 소견발표 차주 상보〉**

이후 총추위는 1월 30일 전체회의서 최종 후보자 3~5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7, 8일 경 열리는 회의에서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제19대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6주연속
베스트셀러
종합1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생기는 책!"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 지음 | 272쪽 | 15,000원

설날 선물은 혜민 스님 책과 함께!

독자들의 이유 있는 선택!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진짜 비싼 심리 상담 받는 느낌이었다. @holina••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보다 내공이 더 강해진 느낌이었다. 교보문고 독자 wave•• ★혜민 스님 책은 읽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고 위안이 된다. 예스24 독자 smy•• ★엄마에게 선물해드렸는데, 쉽게 읽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시네요. 알라딘 독자 강•연 ★책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어떠한 눈물인지는 몰라도 그냥 눈물이 나요. 감동을 주는 언어들이 있다는 데 감사합니다. 교보문고 독자 ka••5711

법보시 및 대량구매 문의 031) 955-9790



수오서재

직지사 주지후보 법보 스님 선출

1월 17일 산중총회 "역대조사 선양사업 전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후보에 前중앙종회의원 법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직지사는 1월 17일 경내 설법전서 교구본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법보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138명 중 47명이 참석했다.

법보 스님은 선출 직후 "문중 화합과 교구 발전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보겠다. 템플스테이를 바탕으로 한 불교문화 확대와 본말사 유대를 돈독히 해 산중 원융화합에 힘쓸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보 스님은 이와 더불어 한글창제 주역인 학조대사와 사명대사, 근대불교 대강백 제산 스님, 관응 · 녹원 스님



등 역대 조사 선양사업을 비롯해 직지사 인근 공원 및 상가 활성화, 직지사승가복지회 확대 등의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법보 스님은 196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성암과 학도암 주지, 제12~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덕숭총림 방장 선출 산중총회 공고

2월 23일 수덕사 황하정루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2월 23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된다. 방장 후보자 자격은 선 · 교 · 율을 두루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 성만해야 한다. 방장은 산중총회 추천과 중앙종회 추대로 결정된다.

덕숭총림은 前방장인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출마 이후 공석을 유지했다. 이번 산중총회에서 설정 스님과 현재 덕숭총림 원로의원이자 수좌인 우송 스님 중 어느 스님이 차기방장으로 추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교구 본 ·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하거나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등이다.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2월 14~16일이다. 열람 장소는 수덕사 종무소.

윤호섭 기자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재임

"무거운 책임감, 종단 재도약 위해 노력"

불교총지종 제19대 통리원장에 인선 정사<사진>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인선 정사는 제18대에 통리원장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

총지종 종의회는 1월 15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144차 종의회를 열고, 현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재임을 결정했다. 총지종은 종령의 후보자 지명과 종의회의 인준으로 통리원장을 선출한다. 제19대 통리원장 임기는 1월 29일부터 3년간이다.

인선 정사는 선출 직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많이 부족하지만 종령님이 지명해주셨고, 인준해준 종의회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임기 동



안 종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선 정사는 이어 "종단 50주년 사업과 국제재가불교대회의 성공 개최 등 앞으로 수행해야 할 종단사업이 많다"며 "종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은퇴출가제, 중앙 · 현장 '온도차'

은퇴출가제 시행 1년, 교구본사들 불편 호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출가진흥의 한 방편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계종 은퇴출가제도가 첫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 배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은퇴출가를 관장하는 각 교구본사들은 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중앙과 현장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출가를 통해 출가, 현재 행자생활을 하는 이들은 총 17명이다.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는 제56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는 이 중 10명의 행자들이 은퇴출가 시행 최초로 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숫자는 최근 일반출가자 인원이 한 해 15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은퇴출가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이 많은 후배 부담"

하지만 정작 은퇴출가 행자등록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구본사들은 은퇴출가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몇 명 되지 않는 나이 많은 행자들을 관리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A교구본사 은퇴출가를 담당하는 한 스님은 "은퇴출가자는 승려생활의 기초인 습의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 숫자도 적다"며 "나이 많은 후배가 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거의 모든 본사가 은퇴출가자를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B교구본사 스님도 "제반사항이 구축되지 않은 채 은퇴출가자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은사 스님을 모시기에도, 다른 행자와의 대중생활에도 걸리는 문제가 많다"고 고충을 호소한 뒤 "교구본사는 중앙에서 만든 출가제도를 떠안은 셈이다. 이로 인한 부담은 본사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은퇴출가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하고, 교구본사는 출가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일부 교구본사들은 내부적으로 은퇴출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퇴출가에 대한 교구본사의 부정적 여론이 제도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C교구본사 관계자는 "솔직히 은퇴출가자도 몇 명 없지만 무엇보다 사중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출가 안내는 하되 우리 본사에서 은퇴출가자를 받지는 않는다"고 내부사정을 설명했다.

은퇴출가 행자 현재 17명
특수출가임에도 적지 않아
첫 수계자 배출도 다가와

현장인 교구본사는 부정적
습의 · 은사 설정에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돼

이처럼 많은 교구본사들이 나이 많은 행자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출가 문의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교육원에 접수된 출가문의 44건 중 은퇴출가 관련 문의는 10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보완 필요성도

이와 더불어 현재 은퇴출가를 시행 중인 교구본사에서는 중도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26명이 은퇴출가 했으며, 이 중 9명이 중도 퇴사했다. 표본은 적지만 일반출가자 중도 퇴사율 26~27%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E교구본사 교무국장 스님은 "지난해 다른 본사에서 출가하지 못해 찾아온 은퇴출가자가 두 달 정도 행자생활을 하다가 돌아갔다. 호적정리를 위해 가족들을 찾아갔다가 해결하지 못한 채 속세로 돌아간 것"이라며 "일반출가자는 출가 6개월 이전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지만 은퇴출가자는 행자생활 중에 해도 된다. 다시 가족을 만나다보면 굳은 의지가 흔들릴 수 있어 미리 정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F교구본사 관계자는 "은퇴출가는 일반출가에 비해 행자 · 사미기간이 더 길다. 65세에 출가하면 최소 71세가 돼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은퇴 이후 사판보다 이판에 집중해 수행생활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계와 선거권 등이 제한돼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퇴출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논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회향출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은퇴출가는 특수출가이기 때문에 여생을 사찰에서 회향하고, 봉사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님을 신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족계를 제외한 별도의 수계규정을 두고, 비승비속과 같은 유연한 출가제도처럼 운영해야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법진 스님 징역 확정… 사퇴 촉구 거세

대법원, 1월 17일 상고 기각
징역 6월 원심 양형 인정

사무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징역 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1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피해자가 법진 스님을 고소한지 2년 3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법진 스님의 사퇴를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의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학원미래포럼이 1월 17일 법진 스님의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람은 분원관리규정, 승려관리규정에 의거해 승려자격이 없다. 따라서 법진 스님은 이사와 이사장 직위에서 사퇴함은 물론, 정법사 분원장 직위와 창건주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법진 스님 사직서를 보류하고, 죄가 없다는 취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한 이사회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미래포럼은 전국 창건주 · 분원장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선학원 정상화에 나서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공사찰 분원장이 이사 및 감사를 맡지 않도록 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지역과 분원 수를 기준으로 이사를 안배할 것, 비구니 이사 비중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선학원 정관에는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징계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포럼은 "이사의 기본 자격은 분원장이다. 이번 판결로 법진 스님은 분원장 자격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사 자격도 상실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래포럼은 "법진 스님의 성추행 확정판결로 선학원은 씻을 수 없는 치욕적 역사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 하루 전 이사회는 법진 스님을 비롯한 임원 6명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후안무치한 결정을 했다"면서 "뜻있는 분들의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학원은 1월 24일 차기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미래포럼은 이 이사회서 법진 스님과 이사진의 거취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시 직무정지가처분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호섭 기자

靈鷲山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9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8년 12월~2019년 1월 24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_ 2019년 1월 24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형일시 _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강주 일진
학장 진광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9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강주 일진 주지 운산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방위 현안 접근… 추진계획 '기대감'

키워드로 보는 조계종 종책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운영기조와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세부과제를 △중앙권한 분배 △대정부 정책 △문화유산 보존 △불교교류 강화 △거점시설 건립 등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중앙권한 분배

첫 번째는 교구본사 역할과 비구니 위상 강화를 통한 중앙권한 분배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선거 당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교구에 이양하고, 법적으로 비구에 비해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구니들의 역할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올해 교구 목적사업 추진 재정 확보를 위한 '교구 특별분담 사찰' 제도를 마련하고, 교구 행정력 강화를 돕고자 중앙종무기관 내 '교구 행정지원 TFT'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승려복지재원 마련과 대형불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각 교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구니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위한 종법 정비, 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비구니 교역직 확대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도 전체 비구니들의 의견 취합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 도출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정책

두 번째 키워드는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대정부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불교계와 상의 없이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조계종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전통사찰 건물 중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에 대한 등재와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우선적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불교 관련 법령을 정리한 뒤 정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 및 미등재 등으로 인한 사찰 건축물 현황과 유형 파악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한 위헌성을 검토하고, 사유지 소유자들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한다.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내방객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유산 보존

세 번째는 문화유산 보존이다. 조계종은 지난해 7개 전통사찰을 포함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산지승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월까지 '산사세계유산 보존관리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무형유산과 일상의례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전승 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개 사찰별 테마를 적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불교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불교전통인 '발우공양'의 전국 설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49재와 예수재 등 천도재 의식 보존계획을 수립해 무형유산 전승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교교류 강화

네 번째는 남북·세계불교 교류 강화다. 조계종은 불교계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남북 합동행사뿐만 아니라 북한 사찰 산림 조성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정치적 색채가 없는 종교교류에서 불교계가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불교계와 공동 사업 △파키스탄 문화교류 △주한 외국공관 직원 초청 행사 △외국인 사찰안내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계획했다. 여기에는 외국인용 경전 번역 안내문 개선과 소수언어 통번역 기능자 확보 등이 포함된다.

거점시설 건립

끝으로는 그동안 계획단계에 머물렀던 거점시설 건립이다. 10.27법난기념관과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대표적이다. 조계종은 현재 총본산성역화불사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분리해 기념관의 대체부지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대체부지로는 봉은사 토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는 사업 본격화에 매진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세종시 체험관은 빠른 시일 내 착공단계에 들어가 거점시설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계종, 현안 논의할 '지도자 포럼' 연다

조계종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과제 설정을 위한 '종단 지도자 포럼'을 연다.

제1차 지도자 포럼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을 비롯해 각급 부실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2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 종합토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연은 △AI발전 현황과 종교의 문제(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승가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국립공원제도 문제점과 전통사찰보존지(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포럼은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 1번지' 조계사,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1월 4일 종로구청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협약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불교계 사상 최초로 마을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조계사는 1월 4일 종로구청과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협약을 체결했다. 마을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개발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직영하던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시작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조계사를 선정했다.

종로구에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평창동과 혜화동, 창신3동으로 조계사는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계사는 올해 직접사업보다는 각 동 마을단체 및 신규 주민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마을 사업으로는 주민조직 씨앗 단계로 첫째 이웃 만들기 사업과 골목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동별 사업컨설팅과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마을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사진 오른쪽)이 종로구청과 운영 협약을 맺는 모습.

이와 아울러 향후 시범기간 후 종로구 관내 17개 동으로의 마을자치센터 확대에 맞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 지원활동가 및 마을 일꾼 발굴, 마을 공동체 교육 홍보, 공모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도 진행하게 된다.

조계사의 이번 민간위탁 선정은 조계사가 그동안 진행해 온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종로구 각 복지기관과 어린이집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 인근에 조계사 청년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는 등 청년 희망사업도 시작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제 불교는 지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 오는 신도들에 기대기 보다, 찾아가는 스님, 사찰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 삶과 밀접한 불교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공적 영역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스님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종단별 연말정산 체계 상이… 확인 필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과세로 인해 올해부터 스님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종교가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 스님과 재가종단 정사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 재무부가 연말정산 업무를 전담한다. 당초 종교인 소득과세로 인한 모든 행정업무를 재무부에서 담당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원하는 스님들은 1월 28일까지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이메일(soim@buddhism.or.kr)로 접수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가 어려운 스님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는 본인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다. 경로우대(만 70세 이상)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위해서는 각각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납입 내역을, 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납입 증명서를, 연금계좌공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기부금공제는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사찰별 2018년 소임비지급명세서를 발송하고 있다. 각 사찰에서는 명세서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무부로 문의하면 된다. (02)2011-1888

태고종은 중앙이 아닌 개별 스님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어느 것으로든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태고종은 종교인과세 안내 당시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공지했다. 따라서 태고종 스님들은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소득 구간이 대부분 낮고, 타 종단에 비해 인원이 적은 관계로 중앙종무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수료 과정 및 강주

초급반 (기본이론 기초과정)
모집조건 모든 종단 승려
교육내용 기본사물, 기본예불, 불공 및 시식
강주 호산스님
일시 화 목 오후 2시 ~ 5시
교육기간 6개월

중급반 (상주권공 I 기초과정)
모집조건 초급반 이수자
교육내용 시련/대령/관욕, 상단/시식, 작법기초
강주 혜령스님
일시 수 금 오후 2시 ~ 5시
교육기간 6개월

상급반 (상주권공 II 전문과정)
모집조건 중급반 이수자
교육내용 상주권공재의식, 전문과정, 작법 고급과정
강주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일시 화 목 오후 2시 ~ 5시
교육기간 1년 과정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불교의식(범음, 범패) 교육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본 원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불교의식의 정수인 영산재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 많습니다. 본 원은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집안내

입학자격
모든 종단 승려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원의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장

전형일정
2019년 1월 ~ 3월 5일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법륜사

입학문의
법륜사 종무소 | 062-655-7444 /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 | 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 | 명휴스님 010-7941-0017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부설 연구원

중림복지관, 지역주민 참여사업 '눈길'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유휴공간 공모 접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공간복지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끈다.

서울 종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주민공모사업 '주민에서 나아가 주인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주민에서 나아가 주인으로'는 지역주민 및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유휴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관 1층 로비와 카페, 지상 1층 주차장 등이 기존 용도 외에 새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관에 따르면, 시설 인근에 있는 호박마을의 주거상황은 열악하다. 따라서 유휴공간을 이들을 위한 동·하절기 쉼터로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단장할 예정이다.

지상주차장이 대체로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별도의 주정차 지정공간이 있지만 쓰레기수거차량이


지난해 말 운영 중단된 1층 (구)카페다온 자리.

주정차하는 일이 잦아, 주민들 사이에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복지관은 이후 심사를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 3월까지 공간 재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공사 완료 뒤에는 아이디어 공모자를 시상하고 공식 오픈한다.

정혜련 복지사는 "사정상 운영이 중단된 카페 자리와 안내 구조물로 공간을 차지하는 로비,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상 주차장 등이 새롭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남방·선불교 아우르는 특강 열린다

불교인재원,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 제 9차 강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2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9차 대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인재원은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불교 핵심 50여 경전과 조사어록을 선정해 2016년부터 매주 월요일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9차 강좌는 남방불교 수행의 기본교과서라 하는 〈청정도론(위숫디막가)〉, 대승불교 교학의 최고 경전이자 화엄 사상의 소의 경전인 〈화엄경-화엄교판〉, 한국 선종의 소의경전 중 하나로 전통 강원의 교과서인 〈능엄경〉, 백장스님의 법어 〈백장어록〉이 대상이다.

강사진으로는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김재성 교수가 〈청정도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화엄경-화엄교판〉,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가 〈능엄경-변마장〉, 서재영 前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백장어록〉을 강의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뻔한 기부, 한번이라도 해봐요

중앙신도회 4차 'Fun한 나눔, 그리고 기부' 실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3월 29일까지 'Fun한 나눔, 그리고 기부' 물품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 진행되고 있는 'FUN한 나눔, 그리고 기부' 운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기부캠페인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행복바라미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Fun한 나눔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면용품과 의류 등을 신도회에 기증하면 된다. 수건과 비누, 칫솔 등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과 행사기념티, 단체복 등 묵혀논 제품 등을 보내면 된다. 택배비는 중앙신도회서 부담하기에 착불로 보내면 된다. 중앙신도회는 이들 정성을 모아 물품을 노숙인 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성원 중앙신도회 팀장은 "지난해 약 1700명 정도의 취약계층에게 배분했다"며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뜸·부항으로 장애인 心身 어루만지다

나눔회, 강북장애인福 한방서비스 봉사 현장

개관부터 20여 년 정기봉사
신체건강·정서적 지지 도움
"삶 공유하는 각별한 사이"
적은 인원서 오는 어려움도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강북장애인복지관 개관 때부터 한방서비스 봉사를 해온 나눔회 봉사자들이 뜸을 뜨고 있는 모습.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1층 배움터에 들어선 장애어르신이 익숙한 듯 봉사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주황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은 이곳저곳 혈자리를 잡으면서 아픈 곳은 괜찮아졌는지 물었다. 시술을 마친 뒤 나가는 어르신이 "항상 고마워요.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자, 나눔회 봉사자들은 "이렇게 추운 날 결석 안 하고 오셔서 우리가 더 고맙습니다!"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나눔회(팀장 이권숙)는 1월 16일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서 한방서비스 봉사를 진행했다. 나눔회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서 개관 때부터 한방 서비스 봉사를 실시했다. 1998년 3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내 성인 장애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번동에 있다.

나눔회 한방서비스는 뜸과 마른 부항 시술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나눔회는 강북장애인복지관서 1, 3주 수요일마다 하루 3시간씩 두 타임으로 나눠 봉사하고 있다.

이날 유독 추운 날씨 탓에 평소보다 신청자가 적었다. 하지만 평소 나눔회 봉사날만 기다리는 애호가 어르신들의 이름은 어김없이 명단에 적혀 있었다.

김창수(가명·80, 지체장애) 씨는 "알고 지낸지 오래돼서 서로 정이 많이 들었다. 선생님들이 인척 같다"며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는데 그동안 힘든 내색이나 찡그리는 표정 한 번 못 봤다. 항상 고맙다"고 말했다.

나눔회 비공식 홍보부장으로 불린다는 채익준(가명·78, 지체장애) 씨는 "뜸을 뜨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서 더욱 믿고 맡기게 된다. 복지관 바깥에서도 나눔회 봉사를 추천하고 다닌다"며 "나보다 더 어렵고 한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눔회 봉사자들도 긴 시간 교류해 어르신들을 서로 별명으로 부를 만큼 친해졌다며 웃었다.

6년차인 김효숙(61) 봉사자는 "봉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어르신들과 같이 지내고 논다고 생각하며 복지관에 온다"면서 "어르신들은 내 미래 모습이기도 하다.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는 게 오히려 기분 좋고 고맙다"고 말했다.

꾸준히 봉사를 이어온 나눔회에도 위기는 있었다. 많게는 10명까지 팀을 이뤘지만, 현재 봉사자는 총 4명. 이사를 가거나 개인 사정으로 하나 둘 떠나가 3년 전에는 봉사를 도저히 계속하기 힘들었다. 팀장인 이권숙 봉사자가 꾸준히 인원 충원 요청을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겨우 다른 팀에도 속한 봉사자 둘을 스카우트해서 나눔회는 유지됐다.

16년째 팀장을 맡고 있는 이권숙(60) 봉사자는 나눔회 봉사가 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마음만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계종봉사단 한방팀 1, 2기가 모여 나눔회를 만들었다. 이미 한방팀도 없어지고 기수생은 나 혼자 남았지만 나눔회를 놓을 순 없었다"며 "봉사를 할 때 깨끗하고 편한 일을 골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안타깝다. 자신의 건강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왔다가는 이 삶에 어르신 손 한 번 잡아줄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박미경 강북장애인복지관 복지사(지역옹호팀)는 "묵묵히 긴 시간 봉사를 이어온 나눔회 팀에게 감사하다"며 "장애판정을 받은 지 오래돼 지역 병원에서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면서 함께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자 어르신들이 계속 한방서비스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맞이 이색여행 '템플스테이' 어때요?

전국 41개 사찰, 설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


기해년 설날을 맞아 전국 41개 사찰에서 특별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9년 기해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설은 주말 포함 5일이라는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이색 여행을 꿈꾼다면 사찰로 떠나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국 41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특별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음력 1월 1일이자 민족 대명절인 설에 맞춘 템플스테이는 △합동 차례 △전통놀이 △통알 △만두 빚기 △떡국 먹기 등 절기에 맞춘 전통 프로그램과 △스님과의 차담 △타종 △새해맞이 소원지 쓰기 등 불교적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서울은 금선사·화계사, 경기권은 용문사·육지장사·용주사·법륜사·봉선사·신륵사·연등국제선원·화운사·중흥사·백련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화계사는 2월 2~3일 '북한산 새해맞이'로 타종 체험과 소금 만다라, 구름 전망대 해맞이 등을 진행한다. 법륜사는 2월 3~5일 복조리와 유과 만들기, 윷놀이 및 널뛰기 등 전통놀이, 설날 합동 차례 등을 준비했다.

강원권에서는 낙산사·백담사·삼화사·신흥사·월정사에서 진행된다. 백담사는 탑돌이와 요가형 108배를, 삼화사는 통알의식과 동해바다 해맞이 및 무릉계곡 트레킹 등을 2월 4~5일 실시한다.

경남권에서는 하동 쌍계사·표충사·문수암, 경북권에서는 심원사·직지사·골굴사·고운사·동화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표충사는 2월 한 달간 떡메치기와 연 날리기, 제기차기, 투호, 국궁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골굴사는 2월 2~6일 선무도와 야외 트레킹, 승마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충남권에서는 마곡사·갑사·수덕사·서광사·무량사, 충북권에서는 미륵 대흥사·법주사·석종사, 전남권에서는 해남 대흥사·미황사·화엄사·불갑사·백양사, 전북권에서는 내소사·선운사·금산사 등이 참여한다. 각 사찰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연락처 등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고요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로 더욱 뜻 깊은 기해년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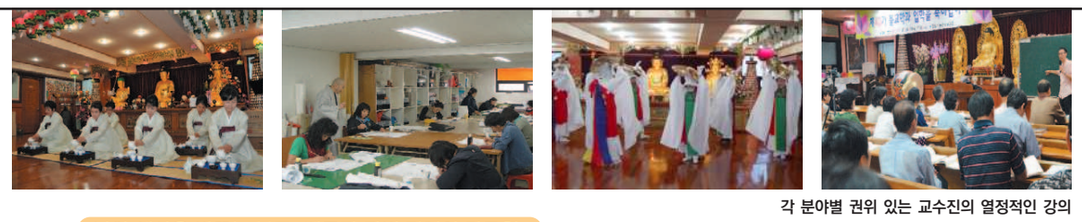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나와 세상을 바꾸는 불교, 베품과 자비·지혜의 가르침
2019학년도 불교학과 54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목요일오후2시]
저녁반 [매주목요일오후7시]
통신반 [녹음CD배송 (동산불교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음원으로 강의 청취 가능)]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정토사상 6.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법산 경일대종사(학장),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정성준 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1) 8. 불교문화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2) 11. 반야사상 12. 유식사상
	교수진	이미령 교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묘주스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저녁반·통신반 각 30명)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1통, 반명함판사진2매, 입학금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19일 ~ 3월 6일
■ 문 의 : (02)732~1206~8
*2년 과정 졸업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개강
•행복한 화엄경 3월 5일(화) 오후 7시
•유 마 경 3월 5일(화) 오후 8시 20분
•대 반 열 반 경 3월 7일(목) 오전 11시

불교 관련학과 개강
•불교다도학과 3월 5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 3월 6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 3월 9일(토) 오후 2시/4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동장군 물러가면 불교공부 시작해 볼까?

전국 불교대학 일제히 신입생 모집

#부산의 A씨. 그는 얼마 전부터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수강을 하면 '불교문화포교사'란 민간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부하고 싶었던 불교교리를 배우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데서 그는 기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직장을 다니는 B씨는 평소 점심시간이면 봉은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곤 한다. 사찰의 구조에 대해 알고 싶었던 그는 기초학당에서 이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는 말에 신청서를 썼다.

1월은 새롭게 한 해를 계획하는 달이다. 많은 이들은 지난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찾는다.

전국의 불교대학들은 이런 이들을 위해 문호를 활짝 연다. 특히 불교교리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 강좌를 통해 불교에 입문한 이들을 돕는다.

조계종에 등록된 불교대학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올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고시한 불교대학은 149곳. 전국 각지에 없는 곳이 없다.

먼저 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신도기본교육을 마친 불자들이 가는 공부터다. 연 96시간 이상의 1~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불교학 개론과 부처님 생애 등 기본 필수과목 외에도 다양한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한 강좌도 열고 있다. 또 다양한 문화강좌와 함께 동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전문적인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불교대학도 생겨났다. 불교문화포교사, 청소년포교지도사를 비롯해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대부분의 불교대학은 3월 1~2일 개강하며, 이에 앞서 1월 말까지 입학생을 접수 받고 있다.

30년 노하우 담긴 불교대학 총본산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조계사 불교대학**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그만큼 커리큘럼이 체계화 되어 있고, 동문조직도 발달돼있다. 특히 다른 곳보다 세분화된 2년 4학기제의 불교대학 외에도 2년 4학기제의 불교대학원도 상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원한다면 총 4년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불교대학에서는 먼저 불교사와 불교사상사, 불교문화사 등을 익히며, 불교대학원에서는 불교윤리를 비롯해 중관학, 유식학 등 세분화된 불교사상을 배울 수 있다. 한 학기당 수강료는 45~50만원으로 입학원서를 제출 한 후 간단한 면접 과정이 있다. 강의 시간은 화요일과 토요일 진행된다. (02)768-8580

직장인 위한 문화강좌 눈길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 불교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보다 친절한 강의가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기초학당부터 야간반이 중심이다. 매주 수요일 7시 39분에 교육이 진행되며 총 12강 3개월 과정으로 기도와 발원, 기초예절 등을 배울 수 있다. 이어 봉은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주간과 야간에 열리며 불교와 현대사회, 불교문화 등 확장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봉은불교대학은 교육동참금 40만원으로 성지순례 또한 진행된다. (02)3218-4800

서울 화계사 불교대학 또한 3개월 과정의 이른바 짧고 굵은 강좌가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야간반으로 직장인들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 학기당 수강료는 1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02)997-6469

민간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대학 강좌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9월 개교 이래 1200여 포교사를 배출한 불교대학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했다.

불교건축과 고미술 등 전통불교문화를 공부하고 이듬해 2월 경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2018년 진행된 제1회 불교문화포교사 자격시험에는 총 44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051)711-0700

이와 함께 동련이 주관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사이버공간에서 수강을 듣고 불교청소년지도사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법회 교재 및 교구 활용, 화엄놀이 DIY를 활용한 청소년 법회, 법회환경 꾸미기 등 수업으로 청소년법회 개론 · 운영 · 실제를 배울 수 있다. 제21기 과정을 모집 중에 있으며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051)852-0852

조계종 디지털대학 또한 기초교리 강좌를 비롯해 불교어린이 청소년지도사 민간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02)929-9288

민화, 선무도 등 문화체험

이밖에 불교대학들은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 24개 사찰의 역사문화를 살피는 강좌를 개최해 화제가 된 **서울 동산불교대학**(www.dongsanbud.net)은 선무도와 한국춤, 천수북, 민화반 등의 문화강좌도 연다. (02)732-1206

울산 정토불교대학은 악기를 제공하는 난타 취미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원불교문화대학**의 경우 불교영어 회화와 단청그리기 강좌도 마련된다. (02)707-1072 노덕현 기자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금강선원불교대학	02-445-8484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봉은불교대학	02-3218-4821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서울정각원 불교대학	02-2260-3016-8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연화불교대학	02-962-6186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경기	금강불교대학	02-898-8200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대덕사불교대학	031-283-3655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봉선사불교대학	031-527-5974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경기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약천불교대학	031-942-1252
	보광사불교대학	031-948-7701
	경인불교대학	031-574-5585
	소림사불교대학	032-612-5900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인천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영응사선재불교대학	032-567-5277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월인불교대학	033-436-6611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89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충남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보명사불교대학	041-522-3362
	향천사불교대학	041-335-3556
대전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2-4200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직지불교대학	043-272-1080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청수사보현불교대학	043-218-9995
부산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법계사불교문화대학	051-711-0700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영주암불교대학	051-754-2210
	인과불교대학	051-704-0332
	여여불교대학	051-851-3572
	선암사나란다불교대학	051-803-7573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부산	발원사 어셈불교대학	051-405-2326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2-0108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용연사불교대학	053-616-8847
	대구불광불교대학	053-656-6766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문경불교대학	010-3776-2476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9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은해사청송불교대학	054-873-2305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경북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금강불교대학	054-632-3767
	상주불교대학	054-535-2881
	대승불교대학	053-802-4080
	기림사불교대학	054-744-2292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543-7195
	구룡불교대학	055-294-3279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통도사전법회관불교대학	055-387-0108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쌍계사진감불교대학	055-883-1901~2
전남	강진불교대학	010-6622-5655
	목포불교대학	061-285-0576
	삼호불교대학	061-461-1212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지역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전남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화엄사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광주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선덕사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광주 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전북	남원불교대학	070-8881-0108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수현불교대학	070-4413-1461
제주	서귀포불교대학	064-733-8882
	제주불교문화대학	064-724-6830
	신제주불교대학	064-746-0108
해외	LA불교대학	1-213-842-6351
	달라스보현불교대학	972-238-8005
포교원	디지털대학	070-8680-9288
	불교상담대학	02-737-7378
	대한불교교사대학	051-852-0852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대전비구니청림회 스님들이 성도절 기념법회서 불교의식을 올리는 모습. 사진제공=청림회

문화예술 어우러진 성도절 법회

대전비구니청림회, 제33회 성도절 문화예술제

성도절을 맞아 문화예술제로 부처님 성도를 기린 기념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일권)는 1월 13일 대전 청림회문화회관에서 제33회 성도절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제에는 대전지역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석준 스님 등 스님들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등 불교의식과 함께 발원문 낭독,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 문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비구니청림회장 일권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불자들은 우월보다 정진으로 지혜로운 인성이 충만할 때 행복감으로 살 수 있다. 성도절을 맞아 오늘 모인 인연을 이어 수행정진 해가자"며 "또한 최근 설립된 청림회관이 대전 시민들의 안심도량 전법도량이 되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성도하셔서 하신 말씀이 곧 나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라며 "내가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성도의 의미를 살려 열심히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회에서는 보문중 · 고교학생과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원 1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찬탄하는 축하공연도 문화제 형식으로 이어졌다. 문화제에서는 동학사 학인 스님들의 헌공의식과 함께 청림회합창단의 공연과 이은용의 색소폰 연주와 이미정 숨결무용단의 춤사위가 펼쳐져 대중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국제교류 다짐한 여성불자들

한일불교문화교류協 여성부, 기해년 신년하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새해를 맞아 국제사회 속에서 불교문화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1월 16일 부산밸류호텔 2층 연회장에서 기해년 신년하례를 개최했다.<사진> 신년하례에는 상임이사 양산 스님, 사무총장 향운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회장, 김석조 고문, 박동희 · 조경순 · 남영희 부회장 등 임원과 회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양산 스님은 "국제 관계는 어렵고 힘든 과제다. 하지만 부산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이끌어 주는 한일불교 여성부의 원력과 노력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자비희사와 사무량심으로 더욱 성장하는 여성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명숙 회장은 "이번 한 해 스님들께 인사하며 좋은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정진해 나아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지원하고 일본을 방문해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알리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 대표 축제에는 시민을 위한 무차만발공양, 동지 팥죽 나눔 행사 등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새해 가야불교 역사 조명 매진"

가야문화진흥원,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마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야사 복원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서 유적 발굴 및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유적 발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불교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2019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 가야 불교를 널리 알릴 계획을 세웠다.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사 복원 사업에 불교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탐방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가야사 내 불교가 지닌 가치 및 중요도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가야 역사 문화탐방 금빛 물결 따라(이하 금빛 물결)'를 진행한다. 금빛 물결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김수로 왕릉에서 출발해 봉황동 유적, 대성동 고분, 수릉원 등 가야 유적지를 탐방한다. 현재 유적 탐방지는 김수로 왕릉 근처로 접근도가 용이한 곳을 먼저 방문하고 이후 점차 늘려 확장할 예정이다.

가야문화진흥원은 금빛물결에서 역사 탐방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

속도 내는 가야사 복원 사업
가야불교 연구도 성과 내야
매월 시민문화체험 제공부터
학술세미나까지 행사 다양해

는 체험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하고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도 및 명상 프로그램과 전통놀이 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가야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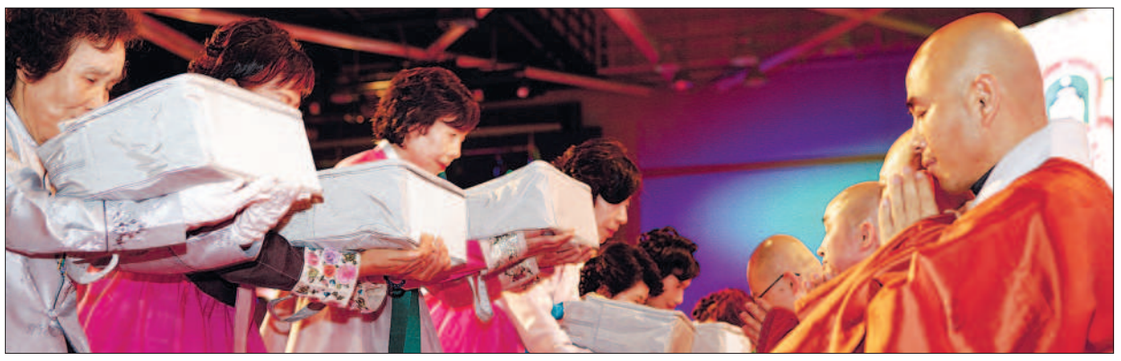
가야문화진흥원은 이뿐 아니라 깊이 있는 가야사 연구를 위해 해외탐방에도 착수한다. 오는 1월 24~27일 가야문화진흥원 스님들은 일본 북 큐슈로 문화탐방을 나선다. 일본은 가야로부터 무기류, 토기, 갑옷 등 철기 문화를 전래 받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일본탐방을 통해 가야문화진흥원은 일본에 전해진 가야문화 흔적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탐방에는 김용탁 강산문화연구원 원장이 동참해 전문 설명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며 해외탐방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문화탐방 외에 깊이 있는 가야불교 연구 발표 및 세미나도 진행된다. 현재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불교연구소에서 4년 동안 매주 금요일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이어왔다. 현재 〈삼국유사〉 원문 강독 및 해석이 완성된 상태이며 이사장 인해 스님은 "기존 해석본에서 해석 오류를 발견했고 유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을 수 있어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인해 스님은 "역사학자들이 '상교(像敎)'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불교가 당시(서기 48년)에 전래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상교가 전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불교가 민간에 보편화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작은 해석 오류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를 기반으로 바른 해석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통해 가야불교를 바로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학술발표와 축제의 장도 열어 가야불교를 알리는데 나아갈 것이라 전했다. 이 가운데 인해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삼국유사〉 가락국기 연구와 장유사 및 연기 사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해 스님은 김해시 사업이 발굴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도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현재 김해시가 세운 사업 계획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및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사업 등 유적발굴과 정비가 주를 이룬다"며 "가야사에 불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야 역사 연구에 불교 학자와 스님들의 구전 등 연구 활동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봉행한 제8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성도일, 승보에 공양 올립니다"

조계종부산聯, 제8회 성도재일 승보공양법회

깨침의 별빛이 빛나던 부처님 성도일을 기념하며 부산불자들이 승보를 예경하고 공양물을 올렸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8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승보공양법회는 신묘장구대다라니합송과 도량청정결계로 시작해 성도재일을 알리는 홀로그램 공연, 환영사, 대회사,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재가자들의 승보공양 이후 승가는 축복경으로 축원하고 공양 올린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시장상을 명정지역아동센터와 양재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에게 시상했다. 이번 승보공양법회에는 150여 명의 조계종부산연합회 어린이연합 합창단이 맑은 음성으로 음성공양을 올려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특히 이번 승보공양은 재가자뿐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봉사모임인 화엄회 스님들이 직접 나서 공양물을 모았다. 이는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 실천을 통해 재가자들이 인색함을 여의고 보살도의 기쁨을 알도록 돕기 위해서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은 "재가자들이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보에 공양 올림으로 삼보의 은덕에 보답하는 자리가 바로 승보공양법회"라며 "오늘 인연으로 바른 법문과 수행자의 참된 모습을 통해 정법의 길로 이끄는 스님들께 예경하는 마음을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 화엄회장 상화 스님 등 180여 명의 스님들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등 재가자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문사승가대학 인재 31명 배출

1월 15일 총 31명 졸업

비구니 인재 양성의 산실인 청도 운문사가 승가대 ·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 불교 발전에 힘쓸것을 당부했다. 청도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진광)은 1월 15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운문사승가대학(제55회) ·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제7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한국불교를 이끌 불교 비구니 인재 31명을 배출했다.

이날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불교발전과 포교를 위해 늘 고민하는 수행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장 진광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운문인의 자긍심을 갖고 동체대비의 자비수행으로 부지런히 정진해 부처님의 이타행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운문사는 1958년 강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2063명의 비구니 불교인재를 양성, 국내 최대의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기여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조계사 약사 · 성도재일 법회

남을 위한 기도, 자비심 키운다

주제 :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현응 스님은… 1955년 경남 창원 출생, 1971년 해인사로 출가해 종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주지 등을 역임, 현재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깨달음과 역사〉가 있다.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이다. 이날 불자들은 법회에 참석해 깨달음을 위한 자신의 신행을 성찰하고, 수행의 의미를 되새긴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월 13일 서울 조계사 성도재일 법회서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란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성도의 가르침은 곧 인과응보적인 노력"이라며 "인연에 따라 달라지는 부처님의 세계관 · 존재관에서 친절과 자비라는 실천을 습관화하자"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성도절은 부처님이 출가 후 도(道)를 이룬 날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바로 그 도를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깨달음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은 가장 높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이란 뜻에서 무상정각(無上正覺), 가장 큰 깨달음이라 대각(大覺), 흠 없이 완벽한 깨달음이라 원각(圓覺)이라고도 합니다. 성도절에 불자들은 이 같은 깨달음의 의미를 기리고, 깨달음을 위한 실천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연기적 삶의 이치, 成道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 대문을 보면, 양쪽 기둥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왼 기둥에는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하는 질문이, 오른 기둥에는 "나고 죽는 생활의 현장이 바로 깨달음이 있는 곳이다"란 대답이 적혀 있어요.

팔만대장경엔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45년간 설법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지키는 곳 입구에 저 문답이 쓰여 있습니다. 깨달음이 저 위의 하늘에 있다거나, 신의 뜻에 따른다거나, 내생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현실을 초월하는 곳이 아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염두에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란 말씀이겠죠.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35세에 성도했다고 합니다. 불기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2563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성도 후 45년 간 설법하신 뒤 열반에 드셨으니,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 2608년이 흐른 겁니다. 당시 인도는 범천(하늘)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냈고, 바라문 · 평민 · 노예 계급 등 변하지 않고 대대손손 세습된 차별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먹지도 못했던, 아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이런 시절에 부처님께서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즉 삶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이치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였죠. 신이 존재하는지, 내생에 대해 알고 싶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숭고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희로애락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만 6년간 구도의 길에 올라 삶이 무엇인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우환은 '나'라는 몸뚱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역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선정 수행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무너지고 따라가는 마음을 잘 정돈하고, 가지 쳤습니다. 점차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겠다 싶어서 삼매, 참선을 했죠. 그런데 마음수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먹어야 하고, 자야하고, 추위에 옷을 입어야 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마다 좌우되는 삶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에 끄달리지 않는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곡기도 끊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 가시덤불에 눕기도 하고, 갖은 고행으로 몸을 극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고행으로도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몸이 무너지지 않는 방식, 중도의 길로 마침내 도를 이루십니다.

인연 따라 변천하는 삶 알고
나와 주변 잘 되길 성원해야
이웃 향한 친절, 기도한다면
자비 실천하려는 노력 확산

부처님은 모든 고행과 방탕을 멀리하고 고요히 사유 · 성찰하고 명상을 통해서 보리수 아래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존재는 인연생 인연멸이란 사실입니다.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은 인연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삶의 조건들에 의해서 생성 유지 성사 소멸 쇠퇴하며 변천됩니다.

이러한 이치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대단할 것 없는 이치일지 모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깜짝 놀랄만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이치는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모두에게 전파됐습니다. 삶, 세상만사는 인연생 인연멸 즉, 인연에 따라 생기고 멸한다는 것을요. 이는 연기(緣起)나 인과응보 같은 말로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가 성도절에 되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비심 길러 실천행으로

그런데 세상만사에는 우리 눈, 귀로써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인과응보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노력보다도 주변인과의 인연, 모든 사회의 조건들이 얽히고설키는 바람에 잘 되기도, 못 되기도 합니다.

인연생 인연멸은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의 생존과 흥망은 자신과 인연 있는 사람, 사회, 나라 등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웃을 위하고 자비를 행하라' '남을 보살피고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을 한 까닭은 결국 나 자신의 불행과 행복과 연관됐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여서 나의 행복을 만들고 인연이 멀어지거나, 잘 안 될 때 나에게 불행과 괴로움으로 다가오니 주변을 살피고 노력하자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는 삼라만상이 인연에 따라 생멸한다는 지혜의 가르침이고, 자비의 가르침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친절과 자비의 길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연 따라 달라져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자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언젠가부터 마음이 시들고 냉담해져서 차가운 도시의 보살님이 되거나, 차가운 도시의 스님이 되곤 합니다. 생각은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심으로 실제 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충청도에 진여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에 혜원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혜원 스님은 "자비심은 우연히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습관화돼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대로 자비심을 몸과 마음에 습관 들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비심을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입니다. 자비심을 배양하고 습관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혹자는 기도라고 하면 기복불교라 해서 수준이 낮은 불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사 고달픈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내 가족과 이웃, 먼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TV에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고 측은지심이 든다는 것은 자비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비심을 배양해야 자비행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자비심이 없는데 자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려면 힘든 사람들을 향해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라고 했다고 하죠. 하루는 큰 법회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뒤쪽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을 앞으로 나와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 불자님이 늘 저를 위해서 우유를 불단에 올려주시고 기도해주신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대중에게 박수를 부탁했습니다. 생불이라 불리며,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여겨지는 달라이라마란 그 분도 불자 한 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일에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박해로 티베트인들이 인도 북부 지역에 작은 땅을 얻어 망명정부를 운영한지 60년쯤 됐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민족을 이끌고 남의 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국민들을 안도하게 하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자비심을 베풀라고도 하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며 그들과 함께해온 달라이라마입니다. 그 배경에는 불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기복불교라고요? 기도는 자비심을 배양하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기도와 성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있을 때 자비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처님도 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의 도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자유의 경지를 얻은 다음에 할 일은 이것이다. (중략) 일체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평화, 행복, 안락 있어라"고 성원하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중생이 축원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널리 배양해야만 자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택, 법당, 길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며, 가족과 이웃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삽시다. 이러한 기도는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모여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성도절 이 법석에 같이 모인 인연으로, 불자님들도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새기고 이웃과 주변에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소리비교 조건만으로 초청후!

본사의 견본 염불시설로 내 염불이 편안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바꾸어지는 가장 확실한 체험후 견본 그대로 시설하는 길만이 사찰에 난무하는 불량 시설들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사가 개발한 염불전문시스템이 시중에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앰프 1, 스피커 2, LG데크 / USB, 무선마이크 헤드셋 2, 핀무선마이크 2 합계 4개
유선마이크 법문용 1 · 염불용 1 스탠드 포함 합계 2개 완벽시설비까지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특징: 고장난 적 없고 앰프다루기 1초

방생용 앰프 및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달라지는 소리도 구경

▣ 소리 비교 조건으로 초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박 청 락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불교, 신분·계급 차별의 '恨' 보듬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② 가슴 답답한 서얼 보듬은 문수사

불교의 문수보살

불교에서 문수보살은 부처님을 보좌하는 상수보살이다. 대승불교 이후 궁극적 목표가 중생의 지혜 증득에 있음을 시사하면서 등장하였다. 손에 쥐고 있는 이검(利劍)은 지혜를 상징한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찾는 선지식이다.

인도의 문수보살 신앙을 보면 다섯 봉우리의 산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며 그 명호를 지성칭념하면 그 공덕이 수승하다고 전해진다. 이런 믿음이 티베트, 중앙아시아로 전해져 많은 영험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어 중국으로 전해진 문수신앙은 동진(東晋) 이후 점점 발전하면서 당나라 때 절정을 이르렀다. 그런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문수신앙은 신라의 자장이 중국 청량산에서 문수대성을 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도 오대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삼국시대부터 형성된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고 하는 불연국토사상이다. 불교를 인도와 중국을 통해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이루었다는 자신감이다. 다음 노인과 동자의 현신(現身)을 통한 어리석음의 타파이다. 마지막으로 중생의 재난을 멈추게 하는 현세구복적 신앙관이다. 문수의 지혜를 빌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관이다. 이런 신앙관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문수보살은 중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었다.

북한산 문수사인가? 삼각산 문수사인가?

북한산이 맞나? 아니면 삼각산이 맞나? 산을 오르다보면 이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삼각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산이란 명칭은 일제시대 이곳에 있던 북한산성을 따서 북한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므로 원래 명칭인 삼각산으로 부르자고 주장한다.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고쳐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물리친 후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곳을 북한산주로 하였다. 150여 년을 이어온 동맹 체제를 깨고 차지할 만큼 전략적 요충지였다. 중국과의 교통로를 얻은 신라는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삼국을 통일하였으니 진흥왕의 선견이 놀랍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북한산이란 명칭은 일제의 잔재로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신라 때는 부아악(負兒岳)이라 하였다. 한때 화산(華山)으로도 불렸다. 잇닿은 산봉우리가 높고 낮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이곳에 올라 이제 살 만한 땅을 찾았다고 했을 만큼 좋은 곳이다.

북한산의 주봉은 백운대이다. 옆의 인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는 까닭에 삼각산이라 부른다.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에 삼각산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그리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의 산세는 북쪽 끝 백운대에서 남쪽으로 문수봉과 보현봉에 이르고 있다. 능선이 길고도 아름다워 일찍부터 비경과 사찰을 읊은 시가 많다.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탓에 봉우리마다 불교에서 따온 이름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문수봉 밑에 있는 문수사는 서울의 사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예종 4년(1109) 대감국사 탄연(坦然)이 창건했다. 이곳을 노래한 탄연의 시가 동문선에 전해지고 있다.

"한 칸 방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길은 돌 틈으로 뚫고 가고,
샘은 구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따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

지혜 증득의 상징 '문수보살'
한국 불국토 사상과 맞닿아
서얼 등 신분차별자들 의지처

달 밝은 밤 작은 암자 문수사의 고요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지혜를 안고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봉을 바라보고 앉은 문수사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겪어온 전쟁과 화마 탓에 사격이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아 아쉽다.

문수사를 찾은 고려의 문인

고려시대 서울은 남경(南京)으로 불렸다. 매우 중요시 여겨 숙종 때 천도할 계획도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중요한 곳이었지만 한창 일할 때 개경을 떠나 이곳을 온다는 것은 벼슬에서 물러나 허탈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고려 시대 이장용(李藏用)이 이곳을 찾았다.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이자연(李子淵)의 6대손이다. 신종 4년(1201) 태어나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문수사를 창건한 탄연이 이자연에게 선을 배웠을 정도로 불심이 깊은 집안이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인 이장용 역시 불심이 깊었다.

원종 10년(1269)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하자 원나라에 가서 원종을 복위시키고 돌아왔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왕이 폐립될 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이듬해 파면 당했을 때이다. 세상을 유랑할 때 북한산 문수사를 들렀다. 고요한 적막 속에 있는 사찰을 보니 인생사 무상함이 복받쳤다.

"벼슬길 그만두려 하나 어리석어 어찌 하리, 좋은 일 가시기 쉬우니 더구나 애석하도다"는 표현과 "인생들 무어라 허덕이나. 쉽사리 의관 벗지 못함은"이란 표현으로 자신의 신세를 달랬다.

그는 자연과 어우러진 문수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돌층계가 들쭉날쭉 90층이 되는 문수사의 전경은 기이하여 세상엔 없는 청련궁(靑蓮宮)이며 크게 슬기로운 진인(眞人)의 집이다. 문수보살을 모신 석굴은 돌이끼 아롱지고, 수풀 속의 감실로 단청이 눈부시다."

예나 지금이나 문수사는 오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리고 석굴 앞에 있는 전각을 법계로 들어가는 입구라 하였다. 세속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저편으로 건너가 쉬고 싶은 그의 심정이 드러난다.



북한산에 위치한 문수사의 문수동굴 모습. 수많은 조선시대 서얼들이 이 동굴을 찾아 차별로 인한 설움을 녹여냈다.

서얼출신 관리들의 의지처 문수사

조선시대 문수사는 수도 한양과 가까운 탓에 많은 문인들의 방문이 있었다. 언제 누가 왔다 갔을까? 조선시대는 배불의 시대이다. 도성의 사찰을 쫓아내고 사대부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할 때 산을 찾고 절을 찾았다면 그만큼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조선 중기 최립(崔岦;1539~1612)은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는 등 실력이 좋았다. 벼슬길도 평탄한 편이었다. 그러나 서얼 출신이었다. 조선시대 서얼 출신이 관직에 나간 것은 행운이었다. 행운이 많으면 비난도 많아지는 법이다. 벼슬이 올라갈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와 같았다. 벼슬길에 나아가 입신양명을 이루었지만 세속의 눈은 차디찼다. 가슴속에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한을 달래주어야 했다. 장마철 진흙탕 같은 벼슬생활을 벗어나 자연을 벗할 수 있는 곳은 북한산뿐이었다. 자신의 문집인 〈간이집(簡易集)〉에 문수사를 노래한 시에 그런 심정이 묻어난다.

"문수사 길 이미 십년 전이라 흐릿한데, 꿈속에서 북쪽 성곽 서쪽을 찾는다오. 지팡이 짚고 서면 골짜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문을 열면 봉우리 위에 달이 떴겠지. 돌구멍에 새벽 물소리 경쇠소리 같고, 등잔 심지 돋울 때 솔바람에 사슴이 울었네. 이 경지를 스님과 함께 언제 다시 가져볼까, 벼슬길은 칠월 진흙탕처럼 질퍽한데."

조선 후기 서얼 출신으로 관직에 나간 북학파의 박제가(朴齊家;1750~1805)와 이덕무(李德懋;1741~1793) 역시 문수사에 올랐다. 그들은 정조의 총애를 받아 세간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총애가 깊어질수록 미워하는 시선도 늘었다. 말 못할 한이 가슴에 쌓였고 그때마다 북한산에 올랐다. 박제가는 '북한산 문수사' 라는 시에서 차별 없는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데서 문득 성문이 보이고, 새들 다니는 길을 돌아 모두 더위잡고 올랐다. 해 지자 현도국에서 안개 피어나는 것 같고, 가을바람에 나그네는 철위산 속에 있는 듯하구나. 형상은 엎어 놓은 독 같이 세 봉우리는 갈라지고, 옥구슬 부딪치는 듯한 한 구비 물로 에워쌓네. 막 절문에 이르러 급히 그림자를 돌아보니, 단풍 속에 든지라 옷과 소매가 빨갛구나."

이덕무는 〈기유북한(記遊北漢)〉을 남겼다. 21세 때 친구들과 북한산 사암 11곳을 다니며 느낀 감회의 글이다. 문수사를 참배한 그는 "석굴을 따라 들어가니 물방울이 비오듯 옷을 적신다"고 적었다. 그리고 불상 좌우에는 500나한을 모셨으며, 이곳을 문수사 또는 보현사라 부른다고 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잊은 이승만

문수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도 인연이 깊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기도한 이후 그를 낳았다.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은 것일까?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힘든 여정에서도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보다 이 박사로 불렀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은 큰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광복 후 먹을 것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경제상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더욱 어려워진 국가를 이끈 것도 대단한 지혜이다. 문맹률이 높아 이해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은 웬만한 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은 1956년 82세에 이곳에 올랐다. 기독교를 믿었지만 자신의 탄생과 관련 있는 곳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나 보다. 문수사 오르는 사진과 대웅전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된 무렵으로 보인다. 이때라도 문수보살의 가피로 재선으로 만족하고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었더라면…. 건국의 아버지란 평가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32-3722, 031)533-3722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다른 관점서 보면 '깨달음' 생긴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② 질문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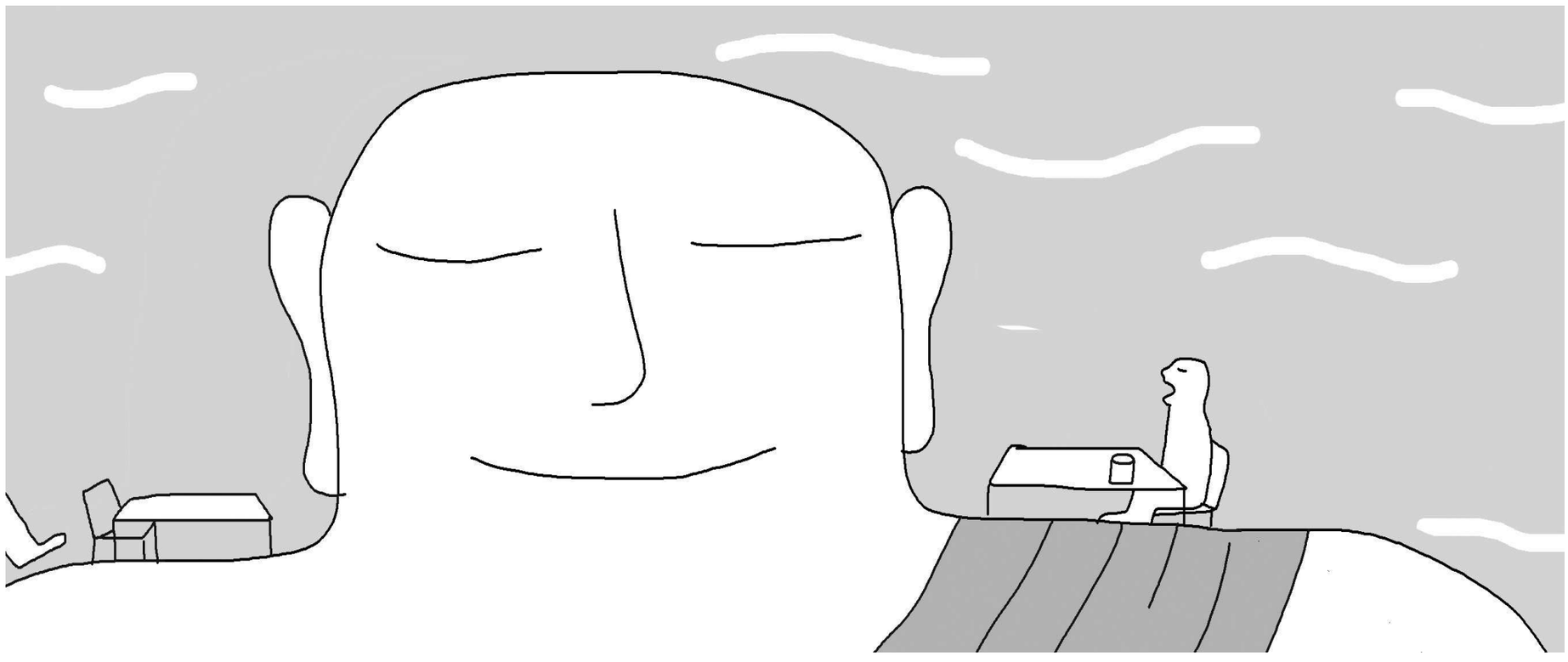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지난해 한 교수의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칼럼이 화제였다. 그가 던지는 근원의 질문에 사람들은 신선하고 당혹스러운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명절에 가족친지가 모인 자리에서 '취직은 했느냐?' '결혼은 안 하냐?' '아이는 언제 낳느냐?' 이런 질문이 날아올 때, '직업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물어 보라는 것이었다.

"그 대답을 들은 작은 아버지나 고모가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 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되묻는 이런 질문은, 해묵은 잡귀와 같은 오지랖을 밀쳐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그 교수의 선문답과 같은 유머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친지와의 상봉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청량한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다.

좋은 질문은 힘이 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자를 깨워 물어보라.

"당신이 누구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30년 넘게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지?"

남자는 짜증을 내며 "당신 치매 왔냐?"라며 돌아 눕겠지만 잠이 다 깨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정말 아침마다 이 침대에서 눈을 뜨는 나는 누구지? 저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 일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나란 존재는 뭐냐고?"

그 시간에 저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

"저 남자와 아이들에게 하루 세 끼 밥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는 나는 누구지? 도대체 가족이란 게 뭐야?"

코치로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세 종류라고 해야겠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나쁜 질문을 하는 사람. '취직은 언제 하냐?' '왜 아이는 낳지 않냐?' 와 같은 질문은 답을 구하기보다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참견일 뿐이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할까? 답이 있는 질문도 있고 답이 없는 질문도 있다. 관점을 새롭게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사진도 찍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다.

코칭에서 관점을 바꾸는 좋은 질문은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다. 코치는 '왜?' 라고 잘잘못을 따져서 묻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로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묻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명주는 4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을 그만 다니겠다고 선언했다. 기겁을 한 부모는 몇날며칠을 설득하고 애원했지만 명주는 고집을 접지 않았다.

지방 소도시에서 수재소리를 들으며 자라난 명주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는 컸다. 그 기대에 맞게 명주는 별다른 말썽 없이 서울의 유명대학에 입학했다. 부모는 전문직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를 권유했고, 명주가 착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명주는 대학을 그만두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 설자여사는 코치를 찾아와서 몇 달째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딸아이를 만나서 왜 그런지 물어봐달라고 하였다.

이런 사례는 난감하다. 코칭은 본인이 원할 때 가능하다. 명주는 예상대로 코치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코치는 명주보다 부모가 먼저 코칭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재안했다. 명주가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방식을 이제는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명주의 아버지는 코칭이 필요 없다고 했고 어머니는 조금 소극적이긴 했지만 해보고 싶다고 했다.

설자여사는 첫 세션 60분 간 명주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부모 말을 듣는 딸이었는지를 말하면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눈물을 섞어 하소연했다. 그녀는 딸의 대화거부 이후 우울감이 극심하다고 했는데 신경정신과를 가느니 코칭을 받기로 한 것 같았다. 코치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가끔 그녀가 하는 말을 되짚어 확인만 했다.

코칭의 시작은 경청이다. 코치는 피코치(코칭 고객, 코치이coachee 라고도 한다)에게 기존의 생각을 의심하고 성찰을 시작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 피코치의 스토리와 심리상태를 집중해서 듣는다.

누구나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라포(rapport, 소통이 가능한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 그녀는 코치의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코치와 그녀 사이의 질문과 대답은 이랬다.

좋고 나쁜 질문 차이 '관점'
상식 · 편견 깨는 것 '불교'
새로운 답 위한 정진 필요

코치 : 어머니는 딸에게 무엇을 기대했나요?

설자여사 :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명주가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치 : 딸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는 무엇을 하신 건가요?

설자여사 :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 없이 키웠고 소문난 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명주 대입 준비하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코치 : 명주는 어머니에게 어떤 딸이었나요?

설자여사 : 자랑스럽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딸이었죠.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시키는 건 다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하는 딸 두었다고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코치 : 따님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군요. 제가 부모라도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 같아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했다고 하셨는데, 명주가 행복한 건 어떻게 아셨나요?

설자여사 : 명주가 행복한 거요?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당연히 행복했겠죠. 명주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엇나가지 않았어요.

코치 : 그러셨군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주변에서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니까 명주도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군요. 명주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설자여사 : …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 질문이 필요한가요? 뭐든지 다 해주고 저를 위해 살았는데.

코치 :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많지요. 따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실래요?

명주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 딸에게 언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묻지 않았다. 딸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곧 딸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명주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질문이 필요하다. 내 마음이 이러니 네 마음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 나의 추측과 예단은 상대방에게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된다. 어머니는 그 후 이메일로 명주에게 지금껏 하지 않은 질문을 했고 아직 답을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그 다음 학기에 명주는 휴학을 했다. 그 시간은 명주가 부모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위한 질문, 상식을 깨는 화두

선불교의 화두(話頭)는 상식과 편견을 깨는 질문이다. 딜레마와 역설로 가득 차 있는 물음이다. 그래서 화두의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선문답을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화두를 왜 만들었을까? 그건 상식을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무문 스님의 화두 모음집 〈무문관(無門關)〉은 문이 없는 관문이라는 뜻이다. 문이 없는 문이라니, 제목부터가 딜레마다.

여기서 문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의 문이다. 남들이 지나간 문을 찾을 생각이라면 무문관은 통과할 수 없다. 상식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딜레마겠지만 자신만의 삶을 찾는 사람에게는 쉽게 풀리는 것이 화두이다. 누구나 지나가는 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을 찾아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문관의 화두를 붙든다. (강신주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정답은 사람의 수만큼 많다. 자신의 답을 구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가?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돈을 벌어 나는 어디에 쓸까? 이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나?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본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교육비 안내
-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접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 745-2030 교학과장 010-7236-0900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

無我 · 無常 바로 아는 것이 '연기'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② 존재의 법칙(무상 · 무아 ·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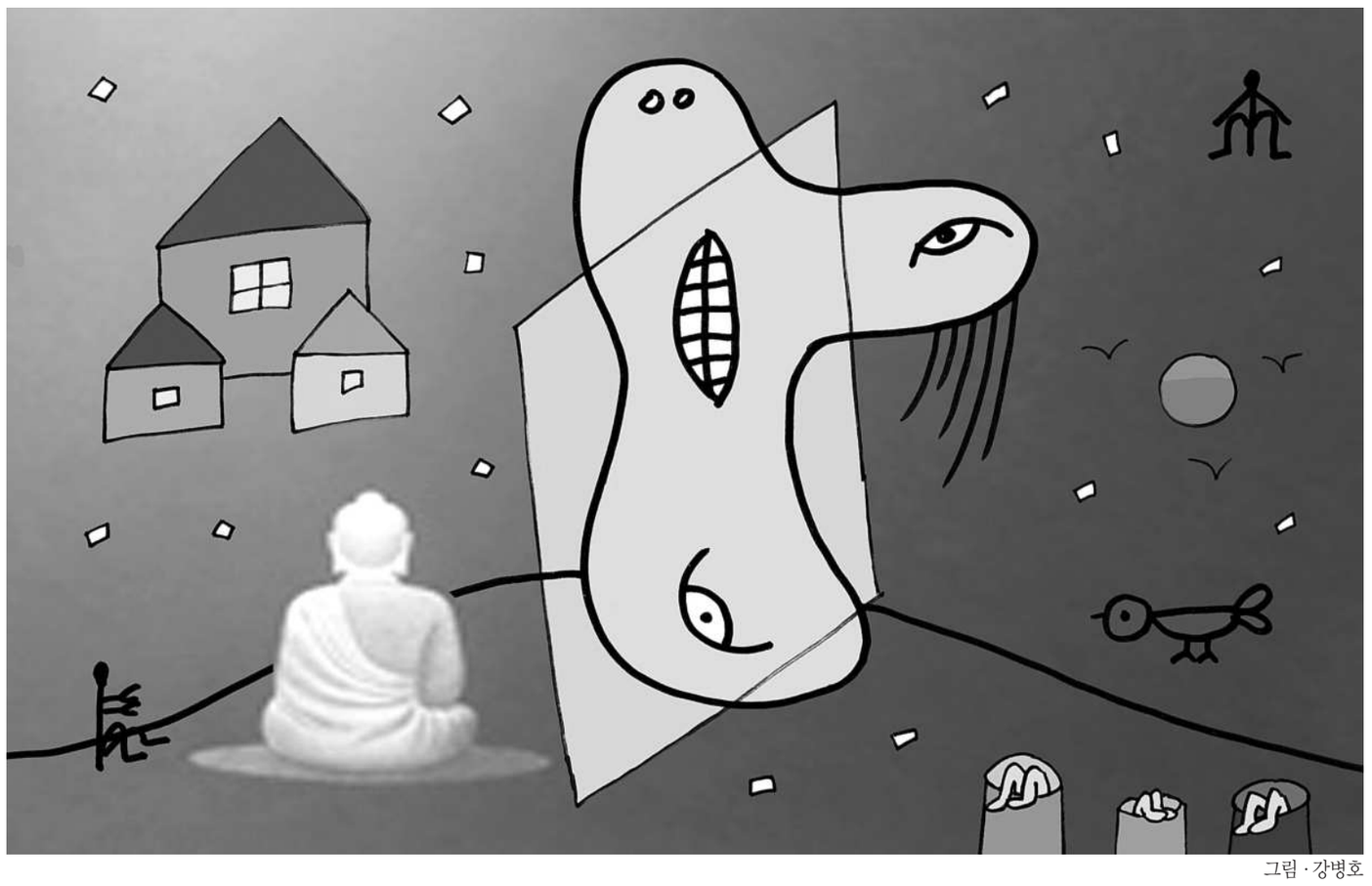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공기는 무게가 있을까? 1640년 토스카나 대공은 집 뜰에 우물을 파서 펌프로 물을 퍼 올렸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갈릴레이에게 왜 물이 올라오지 않는지 해결하라고 했다. 갈릴레이는 제자 토리첼리에게 이 문제를 주었다. 유명한 토리첼리 진공관이 탄생하게 된다. 밀도가 큰 수은으로 실험을 한 결과 공기의 무게(기압)는 수은주 76cm를 밀어 올리는 무게임을 알았고, 물로 계산하니 10m 정도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무게였다. 공기 무게 1기압은 1013mb이며, 물의 높이 1013cm에 해당한다. 대부분 우물은 깊이가 10m 미만 이었는데, 이 우물은 물이 나오지 않아 계속 파다보니 깊이가 11m였던 것이다. 공기 1기압이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10m인데 깊이가 11m가 되니 물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바람이 되는 것이며, 2003년 135명의 인명피해와 약 50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매미가 부산에 상륙했을 때 기압이 910mb였고, 최대 풍속 53m/s의 태풍이었다. 그러므로 달과 같이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허공은 공기로 채워진 공간인 것이다.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생에서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다음 생에서도 똑같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다. 특히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강하게 남는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따지고 보면 다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본인 중심의 생각에서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고 수행자가 되셨는가? '왜 죽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몰두한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법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얻은 답인 연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왜 죽는가'에 대한 문제 해답은 연기인 것이다.

옆집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나 보다. 그릇 던지는 소리, 물건 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부부가 싸움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왜 싸움을 하겠는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것이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자식이 옆에서 싸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자식이 그 영향을 받는다. 그릇이 하나 깨져도 그 집 그릇이 깨지고 자식이 잘못되어도 자기 자식이 잘못된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조금만 내 범주 안에 들게 해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 존재한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인식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 우주는 무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진정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줌으로써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지옥에 가 있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누가 마음이 불편한가? 지장보살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누구나 무아를 인식하고 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불교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도둑을 보면 벌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부처이다. 바로 부처의 한 부분인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제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나? 내가 행복함으로써 나에게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주위를 빛으로 만드는 것이다. 뉴턴이 발견한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인식하는 힘으로 하나의 무생물에게까지 미치는 힘인 것이다.

부처님 '왜 죽는가' 고민해 출가
존재에 대한 고민과 수행 통해
온 우주의 존재 법칙을 깨달아
무아 · 무상에 대한 인식이 '연기'

모든 것은 변한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항상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 했을 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다.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이다. 무상은 이해가 쉽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살아오면서 대부분 쉽게 감지하고 느껴온 부분이다. 내가 이러이러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현재 몸을 받아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느낀 부분이 무상이다.

나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무상을 절절하게 표현한 티베트의 성자 말라레빠의 시가 있다.

이 세상 모든 것 덧없고 무상하여서/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에 정진하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성인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진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에 정진하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진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에 정진하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 이미 낡고 헤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진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에 정진하리.

독립적 존재는 없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라고 하는 실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무아(無我)의 중요한 개념이다. 무아는 '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연관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무아에 대한 인식이다. 존재에 대한 인식인 무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앞에서 뉴턴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서로 힘이 작용한다고 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공동으로 존재한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로써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고 체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불교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만 잘 인식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했다. 아직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주에는 자식이 들어가고 남편이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아프고 부모가 편찮으시면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들판에 늘려있는 풀잎들/ 흩어놓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모아 엮으면 한 칸의 초가집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연기는 빨리어로 '빠띠짜사무빠다(Paticcasa muppada)'라고 한다. 빨리어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언어이다. '빠띠짜(Paticca)'는 '~로 인하여', '~을 원인으로 하여'라는 뜻이고, '삼(sam)'은 잘,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빠다(uppada)'는 발생이라는 뜻이다. 즉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정확하게 결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의존하여 발생하는 법칙이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연기'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표현을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기고/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 없어지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고 했다. 이는 상응부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명할 때 '이것과 저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기의 12지분이며, 응용으로 사성제 등 세상의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무아와 무상에 대한 인식이 연기였고 왜 죽어야하는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의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무아와 무상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고(苦)인 것이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나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적정이다. 또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무아와 무상을 아는 것을 연기이고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내가 아는 만큼 내 것이 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인과를 100% 확신할 수 있다면 완전한 믿음이 일어나는데, 100%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인과법칙이 성립한다면 100%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전생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60%가량 믿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교하고 인연이 되어 좀 더 바른쪽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는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100%로 내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옥천범음대학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19년 신(편)입생 모집

2019. 02. 11 —— 02. 27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전형일정 • 2019년 2월 11일 (월) ~ 2월 27일 (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❶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김태호 스님	수	30명
❷학년 [상주권공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인각 스님	월	편입생 약간명
❸학년 [각배]	각배과정	이기봉 스님	목	
❹학년 [영산]	영산과정	조현성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입학문의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www.okchunbud.kr Tel (02)392-3234, Fax (02)392-3239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③ 소욕지족(少欲知足)

‘작은 것’,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少(적을 소)’는 ‘다(多, 많다)’의 상대어로 수량, 정도를 가리키는 한자이다. 그리고 글자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때론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小(작을 소)’는 ‘대(大)’의 상대어로, 크지 않다는 뜻으로 부피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은 ‘작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 즉 ‘넉넉하지 못함’, ‘적음’, ‘모자람’, ‘부족함’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적은 재산,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욕심이나 물욕이 많으면(多慾) 조금은 천박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물신주의의 천박한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은 〈불유교경(佛遺教經)〉에 있는 사자성어다. 부처님의 ‘유언’ 또는 ‘유훈’이라는 경전인데, 내용이 좀 길지만 그 어떤 글보다 잠언이라서 읽어보았으면 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뇌도 많다. 그러나 욕심이 적은 사람은 욕심이나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少欲之人)은 남의 마음을 사려고 아첨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욕심이 적은(少欲) 사람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 하는 일마다 항상 마음이 평온하다. 욕심이 적은 사람, 그는 번뇌의 불을 꺼버린 니르바나(열반, 寂靜)의 경지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소욕(少欲, 소욕지족)’이라 한다.

만약 모든 고뇌(苦惱)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소욕’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少欲知足). 만족할 줄 아는 것(知足之法), 그것이 곧 마음이 풍족한 안온(安穩)의 경지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있을 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재산, 이성, 식탐, 명예욕, 장수 등 오욕(五欲)에 지배를 당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知足之人)은 그런 사람을 가련하게 여긴다. 이것을 ‘지족(知足)’이라고 한다.”

욕심, 욕망의 끝은 없다. 역사상 몰락한 군주나 정치인들 대부분은 지나친 욕심, 욕망 때문에 패망했다. 이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개인은 물론 한 나라를 망친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

중국 문명사에서 황금시대를 열은 왕조는 당(唐, 618-907) 왕조이다. 그런 당 왕조가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6대 황제인 현종 때부터다. 현종은 처음엔 정치를 잘 했으나 양귀비를 만나 비극적인 사랑, 운명적인 애정 행각에 올인했다. 그 결과 ‘안사(安史)의 난’으로 머나먼 촉 땅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쓰라린 맛을 보았다. 뒤늦게 통한했지만 후회의 속성은 후행성, 엎어진 물그릇은 도저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유명한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는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시가(詩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한 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인 것인지, 끝이 없다. 돈, 출세, 미인 등 소유욕 앞에서는 이성(理性)이 정지되는 것 같다. 제동능력을 상실하고 종착역을 향하여 질주한다. 비극이 눈앞에 나타나야 멈춘다.

욕심이나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理性)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너무 감성에 올인하면 그 결과는 대개 비극을 낳고, 너무 이성에 올인하면 때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낳는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 그것이 곧 ‘소욕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 또한 깨달음이 아니다”



격절록 강설

③ 덕산시중화 평창 1

지금부터 제 1칙 ‘덕산시중화’에 대한 원오 선사의 평창(評唱, 해설과 비평)을 살펴본다. 〈격절록〉 100칙 가운데 본칙이 가장 자세하고 내용이 길어서 4회에 걸쳐 소개한다.

[評唱 1]

師云. 古人擧一機一境 皆明此事. 且世尊未擧花已前 是箇什麼道理. 後來所以 買帽相頭 相席打令 如今只管記憶千端萬端 打葛藤 有什麼了期. 多知多解 轉生煩惱. 古人或拈古頌古一則因緣 須是出得他古人意 方可拈掇.

고인의 일기일경(一機一境)은 모두가 이 일(此事)을 밝힌 것이다. 자, 세존이 아직 꽃을 들기 이전,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뒤에 왔다는 이유로 그저 모자를 먼저 사놓고 머리를 재거나 규칙이나 정해놓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지금 단지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기억해서 말(葛藤)만 늘어놓는다면, 무슨 끝마칠 날이 있겠는가!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할수록 번뇌만 더할 뿐이다. 고인이 혹시(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일칙인연에 염고를 하고 송고를 한다면 모름지기 저 고인의 뜻에서 나와야 문제를 제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只如 德山本是西蜀 講金剛經座主. 聞南方禪宗大興 他云 “南方魔子如此盛 遂罷講散徒 擎將疏鈔 欲破禪宗” 及至龍潭 言下大悟. 後住德山 三日一回搜堂 凡見文字 即時燒却 十二時中 打風打雨. 後來出巖頭雪峰 如龍似虎相似. 到他 打葛藤時 自有奇特處.

그건 그렇고, 덕산은 본래 서촉(西蜀) 사람으로 〈금강경〉을 강의하던 좌주(座主)였다. 남방에 선종이 크게 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남방에 마구니들이 이와 같이 성행한다니 곧장 강의를 그만 두고, 학인들을 해산하고 소초(疏鈔)를 들고 나아가서 선종을 부숴버리고 말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용담(龍潭, 용담숭신)에 이르러서는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닫게 되었다. 그 뒤에 덕산에 머물렀는데, 3일에 한 번씩 승당을 뒤지면서 문자(경전이나 어록)를 보기만 하면 바로 태워버렸고, 하루 종일 (방망이로) 바람을 치고 비를 치듯 했다. 뒷날 암두(巖頭, 암두전활)와 설봉(雪峰, 설봉의존)이 여기서 나왔는데, 마치 용과 같고 호랑이와 같았다. 덕산에 이르러 말을 할 때는 기이하고 특이한 곳(奇特處)이 있었다.

一日示衆道 “汝但無事於心 無心於事 則虛而靈 寂而妙” 又道 “捉空追響 勞汝心神. 夢覺覺非 覺亦非覺”

하루는 (덕산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다.

“그대들이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도 오묘하게 된다.”

또 말했다.

“허공을 잡고 메아리를 좇으니, 그대들의 심신만 수고롭게 하는구나. 꿈에서 깨어나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음 또한 깨달음이 아니다.”

*일기일경(一機一境)은 선사들이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할!”을 하는 등의 미묘한 언동을 뜻한다.

*拈掇(염철): 원래는 어떤 물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것을 의미. 선어록에서는 문제로 제기하여 이야기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상석타령(相席打令)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용담숭신(龍潭崇信, 782~865)은 천황도오(天皇道悟)의 법을 이었고, 덕산선감의 스승이다.

*암두전활과 설봉의존, 그리고 흠산문수 3인은 선가에 도반으로 유명하다. 앞의 2인은 덕산의 법을, 흠산은 동산양개의 법을 이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③ 믿음(信) 편 3

종교를 믿는 이유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다. 이런 개인적 욕구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욕구도 있다.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설날이 되면 떡국이 먹고 싶고 추석이 다가오면 송편이, 동짓날엔 팥죽이 먹고 싶다. 서구인들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칠면조 요리가 먹고 싶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욕구가 발동하는 것이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배가 고픈데도 먹지 않으면 굶어죽고 설날인데도 떡국을 먹지 않으면 마음에 뭔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온다.

세속적인(俗)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聖)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 욕구도 마찬가지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주말이면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 간다. 종교적 욕구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종교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종교적 욕구 또한 개인적, 사회문화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욕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한한 실존 앞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여러 종교에서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종교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유형을 건강형(Healthy minded)과 병적인 형(Sicked minded)으로 구분하였다. 건강형이란 친구나 부모를 따라 교회나 성당에 가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교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속한다. 반면 병적인 형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유한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사의 문제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차지한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종교가들은 대개 병적인 형에 속한다. 석가모니 붓다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화려한 삶을 살다가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과 마주한다.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실존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고 6년간의 처절한 고행을 한다. 마침내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종교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처럼 생사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자력(自力)이라 부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의 힘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력신앙이다. 스스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달리 기독교에 의하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지음을 받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해결하는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처럼 신의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타력신앙(他力信仰)이라 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고 죽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종교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타력신앙의 전통에서는 종교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불교와 같은 전통에서는 깨달음이나 열반 혹은 해탈이라 부른다.

아무리 위대한 학문이라도 이러한 생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종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리켜 ‘으뜸가는(宗) 가르침(敎)’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모집안내 문 의 : 김해 관음정사 종무소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개강일시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준 비 물 목탁, 요령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업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



무여 스님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초청 법회서 당부

봉화 축사서 주지이자 조계종 대종사 무여 스님이 성도재일을 맞아 불자들에게 끊임없는 공부를 당부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등운)는 1월 10일 안동시철 대동관에서 봉화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을 초청해 성도재일 법요식을 봉행했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무여 스님은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등불이 될 것을 당부했다.

무여 스님은 "불자들은 스스로 하심하면서 남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자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경전을 읽고, 사찰에서는 늘 목탁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은 생사를 초탈한 깨달음으로 번뇌에서 벗어나 무상정각을 이뤘다. 불자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비 보시를 실천하며 인과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동화사 · 불국사 각각 성도절 법회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와 11교구 불국사가 성도절을 맞아 각각 기념법회를 봉행, 부처님 깨달음을 기렸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와 대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선지)는 1월 13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천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성도절 가사공양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서는 불자들이 정성들여 만든 가사를 215명의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선지 스님은 "부처님께서 정각 이루심은 어두운 사바세계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다. 청정한 불국정토를 이루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효광 스님은 "나와 네가 둘이 아니고 사람이 곧 부처라는 성도절 본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12일 불국사 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육신과 정신의 조화로 깨침의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법문했다.

부주지 철산 스님은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얻었고,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참된 지혜로 보살도를 실천해 자유인이 되자"고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 자비 실천 충주가 모범 되길"

Interview

제21대 충주사암연합회장 일심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대 이어 21대 회장직 추대
비구니로서는 연임 최초 사례
공간 중심 취약계층 지원 계획
지역사회 공헌에 사찰들 참염

"제20대 회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연임하게 될 것이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대중의 뜻으로 받아들여 충주가 부처님 자비 실천의 모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불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 제21대 회장에 법화종 장왕사 주지 일심 스님이 1월 12일 추대됐다. 일심 스님은 2017년 1월 제20대 회장에 취임한 충주사암연합회 최초의 비구니다. 이 때문에 비구니가 사암연합회장을 연임한 것은 더욱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년간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 힘써온 일심 스님은 취임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향후 '거점을 통한 지역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 30년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불교단체입니다. 연합회에는 120여 사찰이 소속돼 있고, 임원사찰만 해도 20여 곳에 달하죠. 수많은 사찰들이 종단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굳건한 내실을 중심으로 대사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나설 때입니다. 그 첫 단추는 유치원과 양로원 같은 특정 계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사암연합회는 소외계층 백미 지원과 장학금 기탁, 호국영령 국태민안 위령제 등 다양한 방편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단발성 행사가 중심을 이루면서 지역민들과의 지속적 교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일심 스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해 제공하면서 연합회의 대사회적 역량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불교 최초의 승원인 죽림정사는 빔비사라왕이 승가에 보시한 땅에 마련됐고, 사위국의 재벌인 수닷타 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 공양 올려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보시 공덕이지만 죽림정사와 기원정사 모두 하나의 공간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법한 공간이 생긴다면 소속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간 마련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재원이다. 그렇기에 일심 스님은 지금의 목표가 단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진 않았다. 다만 스님은 지금의 장왕사를 맨 손으로 일궈낸 경험을 바탕으로 공의를 모아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충주사암연합회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의 발원을 이루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충주의 사찰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고, 그 방편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라는 것을 알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일심 스님은 이천 영원사와 백용사에서 수행했으며, 1976년 충주 장왕서를 건립하고 현재까지 주지를 맡고 있다. 법화종서 수차례 감사패와 공로패 등을 받았으며, 2008년 충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종단 내에서는 사회부장 소임을 거치고, 2012년 동국대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포교 원력 다시 나눠요"

포교대상 혜거 스님 · 이정옥 상금 전액 조계종에 기부





제30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한 혜거 스님과 이정옥 씨가 대상 상금 전액을 각각 포교진흥기금과 불교성전편찬기금으로 희사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1월 15일 조계종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포교진흥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왼쪽〉 기금은 구랍 19일 제30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전액으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됐다.

혜거 스님은 "오히려 더 보태서 내야 하는데 부끄럽다. 적은 금액이지만 종단 포교불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기금을 전하게 됐다. 올해 포교원이 진행하는 포교불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원은 올해 신행혁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의 마음을 받아 더 열심히 포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제30회 포교대상 재가자 부분 대상을 받은 이정옥 씨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불교성전편찬기금으로 상금을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이정옥 씨는 "불교성전 편찬은 이 시대 불법 홍포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성전을 보고 신심이 날 수 있도록 잘 편찬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모바일과 점자 성전 등 시대에 맞는 성전도 준비해 가겠다. 불교성전 편찬에 보내온 첫 성금인 만큼 의미 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 외교부 '교육 MOU'

영사분야 교육 · 전문인력 양성 위해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6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와 외교부는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총연합회 회장단 추대

총재 회암 스님 · 회장 정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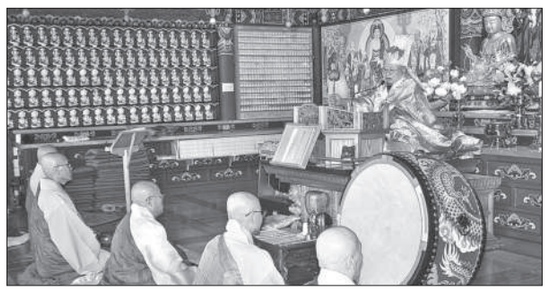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이사장 산수)는 1월 15일 충북 옥천군 옥천명가에서 제2기 회장단을 구성했다. 총재에는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회암 스님, 부총재에는 (사)한국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스님이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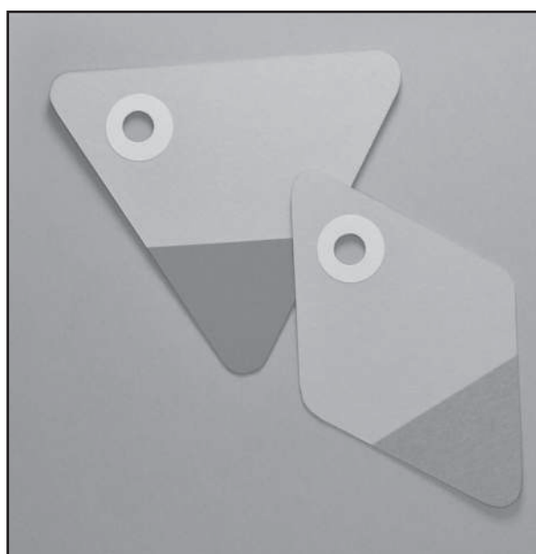
회장에는 (사)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정일 스님, 상근부회장에는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일 스님, 수석부회장에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학장 지일 스님, 상임부회장에는 (사)대한불교연조계종 총무원장 혜광 스님, 부회장에는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미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연화조계종 기해년 신년하례

1월 10일 총본산 정림사 대웅전서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10일 총본산 정림사 대웅전에서 기해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보명 스님과 종회의장 봉정 스님, 총무원장 혜법 스님, 문화원장 진송 스님, 총무부장 정호 스님 및 회원 종도 사찰 주지 스님 2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서양불교 색깔 여성·연민에 초점"

잭 콘필드 · 트루디 굿맨 등 불교 지도자 대담

박정현 객원기자

'서양 불교'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갖기 시작했다. '승가' 또는 '기복 신앙'에 집중된 아시아 불교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막 제 옷을 입기 시작한 서양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다음은 이와 관련해 불교매체 라이언스로어(Rion's roar) 주최로 서구 불교 지도자 잭 콘필드(Jack Kornfield), 트루디 굿맨(Trudy Goodman)과 배우 산드라 오(Sandra Oh)가 나눈 대담이다.

산드라: 불교가 미국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관계가 금세기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잭: 그것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불교가 미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사실 연민, 자애, 용서, 평정, 상호 의존 등을 '실천'하는 그 자체에 있다. 그 실천이 선행된다면 자연히 교육, 건강관리, 예술 등을 변화시킬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또 다른 종교 또는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서양 불교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 아직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일본이나 티베트 불교처럼 새로운 형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유의 서양 불교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발전단계 계속되는 서양불교
일반인 중심으로 성장해와
여성지도자 활동 두드러져
日·티베트 등 새 형태 기대

서양문화 내재된 폭력 등에
불교 가치가 도움될 수 있어

트루디: 여기 불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가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3대 여성 평신도를 통해 다르마가 전도되는 과정을 봤다. 내 불교 스승 중 한 명인 샤론 잘츠부르크(Sharon Salzberg)로부터 내게 (다르마의) 환희가 전달됐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 크리스티안 울프(Christiane Wolf)와 베스 스턴리브(Beth Sternlieb)에게 이어 나갔다. 그것은 서양 불교에서 일종의 '격변의 시기'를 상징한다.


왼쪽부터 서양불교 지도자 잭 콘필드와 트루디 굿맨, 배우 산드라 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잭: 맞다. 서양 불교는 아시아 불교와 달리 평신도 및 일반 불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는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다. 다소 가부장적인 아시아 불교보다 더 민주적인 면도 있다. 이제는 기술과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에서 미래 불교 세대들이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

산드라: 오늘날의 서양 다르마 연구가들이 그들의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트루디: 모든 다르마 연구가들은 그들의 장단점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들 삶에서 어떤 영역에 관심이 더 필요한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불교 선구자들은 우리가 다르마를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일러줬다.

전반적으로 나는 미래의 명상가들이 '스스로' 사색하는 삶을 어떻게 전체 인간 사회에 전파할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 문화에 내재된 '억압' '폭력'과 같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 불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러한 자성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내면의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

잭: 나 또한 미래 다르마 연구가들이 '사랑', 즉 연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연민은 불교 실천의 척도다. 사랑, 애정, 연민의 감정이 커질수록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지혜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산드라: 어떻게 당신의 가르침이 수년 동안 변화를 이끌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나.

잭: 내가 (불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나아졌다. 나는 아시아에서 전사적으로 불교를 배웠다. 밤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금욕적인 수도원 또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충동을 억제시키는 다소 사납고 야생적인 접근법이었다. 진실은 우리의 정신은 서양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방법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관용과 동정심을 먼저 수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내가 변화해 온 한 가지 방법이다.

산드라: 오늘날 불교와 마음챙김명상이 서양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엇이 사람들을 불교 또는 마음챙김명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나.

트루디: 명상은 이제 사회 많은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불교 명상법뿐 아니라도 명상적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비단 종교로서가 아니라 '생활 건강'의 일부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때로 마음챙김명상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 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음챙김명상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우선 불교 명상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다.

뉴질랜드, 이민자들 방생으로 '몸살'

붉은귀거북 · 장어 등
생태계 파괴 문제로

뉴질랜드 불자들의 방생활동이 자연생태계를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 '뉴질랜드헤럴드(nzherald)'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불자들이 웨스턴스프링스 호수에 거북이를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방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오클랜드 평의회 생태환경 자문위원인 이모겐 바셋 박사는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은 가장 빨리 퍼지는 동물 중 하나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자들은 장어와 생선과 같은 도살될 예정인 어류를 식당과 어시장에서 사들여 강과 바다로 풀어주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불교는 동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전파됐으며, 뉴질랜드에서 기독교와 힌두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종교다. 대부분의 방생은 이러한 동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바셋 박사는 오는 2월 중국의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방류되는 동물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뉴질랜드 불자들의 방생 활동이 뉴질랜드 자연생태계를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뉴질랜드헤럴드

그는 "포획된 동물들을 야생으로 방류하는 것은 대부분 위법행위"라며 "붉은귀거북이나 비단잉어 같은 외래어종은 뉴질랜드 토착어종과 취약한 민물 생태계에 스트레스를 주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턴스프링스 호수는 뉴질랜드 토종장어와 식물들의 서식지이자 흑조와 같은 새들의 고향이다. 그러나 최근 이 생태지역에 토끼와 수탉 등이 버려지면서 애완동물의 쓰레기장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불자는 "방생을 위해 40~100달러를 주고 애완 거북이를 사서 풀어주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거북이가 장수를 상징하고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믿어 거북이를 자주 산다"고 말했다.

불자인 헤일리 영은 "식당에서 식용으로 쓰일 대구를 사서 물가에 풀어주며 염불을 한다"며 "물고기 한 마리가 방류되면 죽더라도 그들은 자연에서 죽는다. 이것은 해방을 의미하며, 나는 그들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동물 방생이 야생 동물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록 그것이 종교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생태계를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질랜드 당국은 방생활동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키위스(Kiwis)'와 같은 멸종위기동물 보호단체와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페르난도 오클랜드 의대교수는 불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불교의 오래된 전통"이라며 "하지만 이들을 방생하는 것보다 가족, 동료를 비롯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부드러운 친절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도 구자르트서 4~5C 불두 발견

불교명소 타룽가 인근 '람데브 퍼' 사원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州)는 불교의 과거와 현재 사이 어떤 '회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구자르트 내 바라비 푸르(Valabhi), 바다거(Vadnagar), 타룽가(Taranga) 또는 데브니 모리(Devni Mori) 등 지역들은 기원전 3세기와 서기 13세기 사이 인도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타룽가 인근에서 발견된 석가모니 부처상의 머리는 인도고고학조사(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이하 ASI)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의 1월 1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ASI는 인도 불교의 고고학적 명소인 타룽가 지역에서 4~5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불상의 머리를 발견했다.

ASI 관계자는 "우리는 타룽가 언덕에서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솔타사나 타루카(Saltasana taluka)의 네갈디(Negardi) 마을에 있는 람데브 퍼(Ramdev Pir) 사원에서 불상 머리를 발견했다. 곱슬머리와 긴 귀, 둥근 얼굴형, 반쯤 감은 눈 위에 아치형의 눈썹"이라고 불두의 생김새를 설명했다.


인도고고학조사단(ASI)의 발굴현장.
사진출처=타임즈오브인디아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불상 두상과 비슷한 형태가 데브니 모리 유적 발굴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유물이 4~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ASI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ASI는 지난 3년간 압히짓 암베카르(Abhijit Ambekar) 박사의 지도하에 바다거, 타룽가 등 지역의 불교 유적을 조사해 왔다. 이 장소에서 구자라트 및 인도 서부 불교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주요 유적들이 다수 발견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위패 출력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쓰레기 같은 글도 보물이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② 글쓰기명상 기본 원리



많은 수행 초보자들을 좌절시키는 한마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듣고 본 사실이다.

'명상은 생각을 끊는 것이여. 생각이 안 끊기면 명상이 아닌 것이여!'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초보 수행자의 실망에 찬 한숨과 발길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눈을 감고 허리를 곧추 세우고 앉으면 생각이 끊기기는 커녕 없던 생각들도 뭉게구름처럼 부얼부얼 일어나는 것이 왕초보 수행자들의 운명 아닌 운명 아닐까.

'생각을 끊어라!'

말씀인즉슨, 틀린 말은 아니다. 열반에 이르는 선정 중에서 궁극의 단계에 상수멸정(想受滅定)이 있다. 생각과 느낌이 끊기는 자리이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생각과 느낌이 모두 박살난 자리를 목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상대는 혼자 눈감고 척추 세워본 기억이 거의 전무한 수행 초보자의 몸이다. 말하자면, 죽도록 생각을 굴리면서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남들 어깨를 비집고 겨우겨우 고개 좀 들이밀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틈만 나면 검은 동공과 생각을 눈덩이 굴리듯이 굴리면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한마디로 생각 중독자! 지금을 사는 우리 대부분은 알콜 중독이나 흡연 중독보다 더 지독한 생각 중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끊어라'는 말을 듣는 즉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스프린터처럼 질주한다.

'아니! 생각이란 게 끊기기도 한단 말이야?'

그것은 마치 알콜 의존자가 '술을 끊어라'는 말을 듣는 즉시 푸르게 빛나는 소주 한 병을 떠올리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생각한다.

'아, 역시 나는 수행할 팔자가 아니야. 나처럼 번뇌 망상이 많은 사람이 수행은 무슨!'

'명상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 사람들이야. 봐! 생각을 끊으라잖아. 그까짓 생각이 뭐라고, 그것도 못 끊는 자가 무슨 명상은 명상이냐고!'

마음이 열려야 보인다

글쓰기명상은 그래서 생겨났다. 생각을 끊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보고 알아차려야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는 힘이 약한 나부터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창궐하는 생각들을 끊어내는 시스템이 있을 거야.'

알고 보면 붓다 또한 모든 중생의 생각을 스스로 드러내어 알아차리게 하신 분이다. 붓다는 당신을 찾아온 모든 대중의 내면에서 떠도는 생각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환경을 조성해주셨다. 대중의 말을 경청하시고 반드시 그가 한 말을 토씨 하나 틀림없이 반복하셨다. 경전을 보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신다. 대중은 붓다의 입을 통해 방금 전에 자신이 일으켰던 생각을 다시 듣는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붓다에게 온전히 수용됐음을 앎으로써 그는 비로소 생각을 그치기에 이른다. 이런 조건을 만든 후 붓다는 비로소 설법을 시작하셨다.

붓다 설법의 원리는 수용이고 경청이다. 글쓰기명상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자라는 수단을 통해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붓다가 그러하셨듯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토씨 하나 틀림없이 확인하는 방편이다. 그럼으로써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자신의 생각과 언어가 보인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에 수용과 공감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내 생각이나 기억,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 있는 그대로 공감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소모적인 생각 굴리기를 그치게 하는 명약임을 증명하는 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스티븐 헤이즈(Steven C Hayes)는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는 심리 시스템을 응용하여 '수용전념치료'라는 개념을 만든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애쓸 때 오히려 그 고통에 휘말리게 된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글쓰기명상은 혹시 당신에게 있을지 모를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글로써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글쓰기명상은 혹시 당신에게 있을지 모를 혼란을 수용하고, 그것을 온전히 글로 드러내어 살펴보는 것이다.

생각 끊으라는 선사들 조언
초보 수행자에겐 막막할 뿐
글로 감정상태 마주해보면
자기 생각과 언어가 보인다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는 나의 고통이나 혼란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바람이나 구름 같은 일시적 현상인가.'

써놓고 보라. 오늘 보기 싫으면 내일 보라. 쓸 때의 상황이나 감정, 생각들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딘지 낯설고 이런 감정이 있었나 싶기도 한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글쓰기명상의 태도

'태도(態度)'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마음가짐'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글쓰기명상에 대해 당신이 취하게 될 몇 가지 마음가짐을 풀어보자. 언급하는 몇 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당신의 가슴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글쓰기명상에 대한 마음가짐 첫째는, 쓰고 있는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쓰든 완벽한 글이라고 믿어라.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서 경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이 쓴 글을 누군가 읽을 일도, 읽혀줄 일도 없는 바에는 정말, 내가 지금 쓰는 글이 지구상 최고의 문장이자 최후의 문장이라고 믿어도 하등에 꿀릴 일 없지 않은가.

둘째, 쓰레기 같은 글을 써도 좋다고 생각하라. 허접하거나 찌그러졌거나, 그림도 아니고 상형문자도 아니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친구는 '글쓰레기 산'을 만들어도 좋다는 정신으로 글만 써댔더니 어느 날 작가가 됐다고 한다. 그 친구에게 욕을 한바탕 해줬는데, 다행히 둘 다 유쾌했다.

셋째, 가급적이면 손을 계속 움직여라. 마음이 먼저인가, 몸이 먼저인가. 이런 질문은 부질없다. 먼저인 놈이 먼저다. 어차피 나뉘지 않는다. 몸이 움직일 때는 몸이 마음을 이끌고,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몸을 이끈다.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 손이라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라 움직인다. 계속 움직이면 마음도 계속 움직이며, 기억이나 생각, 감정 따위를 열렬히 수급한다. 염려마라. 노트에 글씨를 쓰든, 자판을 두들기든, 손가락을 '다다다다' 두들겨보라. '두두두두' 하고 생각이나 기억이 숨차게 따라올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 검사하던 선생님의 잔영을 깨끗이 지워라.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비속어, 욕설 따위를 마음껏 남발하라. "아이 씨, 쌤, 그때 왜 그랬어요?"라고 써 갈겨라. 글쓰기명상은 이런 태도가 몸에 익을 무렵 이륙을 위한 날개를 편다. 나의 속물성과 비합리성, 분노, 폭력성, 욕설, 탐욕 따위가 노트 위에 여름날 마당 가득 널린 태양초처럼 붉은 빛으로 선연하도록 내갈겨라.

다섯째, 논리적 사고는 쓰레기통에 처박고 시작하라. 당신은 문자라는 문명의 유물을 붙들고 근사한 '기승전결' 놀음을 하다가 정작 챙겨야 할 내 마음과 결별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내 안의 원초적 자유분방함, 그 순결성, 그 천연덕스러운 바보는 다 어디로 갔는가. 집에서도 논리, 회사에서도 논리,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라는 악다구니에 시달리는 당신의 뼈와 살.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삶의 궤적이야말로 비논리 천지다. 논리나 계산대로 살아진 적이 얼마나 있던가. 인간관계가 논리적으로 엮여지던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랑과 이별도 그렇다. 우연과 비논리의 생명체가 논리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대는 상황이 당신의 현실 아닐까. 이 간극이 더 벌어지기 전에, 천진한 비논리, 어여쁜 내 삶의 비논리적 내면을 마음껏 드러내보라. '기승전결' 글쓰기 따위는 내던져버려라.

여섯째, 두려움이나 발가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계속 써가라. 두려움이나 네거리에 발가벗고 선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당신은 글쓰기명상의 궤도에 들어선 게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눈과 입술 앞에 오도카니 앉아 뒤통수로 그를 의식하면서 끄적거리는 형국이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그를 향해 도끼눈을 한 번 날리는 것이다.

일곱째,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 무슨 생각이 나든, 바로 거기서부터 써라. 시인 안도현은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내 안의 하찮아 보이는 한 생각, 내 눈앞에 놓인 찢어진 수첩 한 장, 손톱깎이 따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써나가보는 것. 글쓰기명상은 그런 하찮거나 작거나, 비루한 것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려보듯 써나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여덟째, 비약이나 엉뚱한 비유 따위를 마음껏 구사하라. 내 안의 생각이나 기억, 감정, 어떤 스토리는 이미 그림자이자 만화이고 영화와 같은 상태다. 박제되거나 화석화돼 있는 내 안의 마음이다. 이것들이 당신의 진술을 통해 생동하는 글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글로써 드러내는 순간이 목적이자 결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글을 쓰는 순간의 당신 마음껏 비유하고, 비약하고, 반전시키는 권력을 누리는 게 우선이다.

아홉째, 쓰고 난 글은 어떻게 할까. 글쓰기명상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왔다. 미련 없이 버리거나 소각하는 원칙을 지켜라. 이 조항은 소위, 1조 1항이다. 이왕이면, 강물 위에 글을 쓴 듯 마음도 씻어내기 바란다. 지금 내가 쓴 글이 금과옥조 같은 명문이라 해도, 당신의 생각이 보석 같은 가치를 갖는다 해도 그냥 흘려보내왔듯이, 글쓰기명상 또한 마찬가지다. 쓰고 난 글은 버리고 비우고 초연하라. 당신이 버린 글보다 아직 쓰지 않은 내면 드러내기에 더 가슴을 활짝 열어라.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30 호 현대불교
2019년 1월 23일(12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얼그렁덜그렁 하지 말고 즐겁고 패기 있게 사세요

참선이 어떻게 생활에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 저는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저희 생활과는 동떨어진 느낌이라 절 근처만 맴돌곤 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의 생활 참선에 대한 법문을 보고 용기를 내서 선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수승하다 할지라고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참선이 어떻게 생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뭣고?' 하고 열네 날 있어도 뭐는 뭡니까? 그냥 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 선지식들께서 표현하시기를 "수박을 놓고 이게 뭐냐고 아무리 돌려 가면서 봐도 맛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내가 체험을 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하나 행하는 것을 좌선, 입선, 와선,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이 세상 돌아가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공안(公案)이 될 수 있고,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도량이 될 수 있고, 내 앉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찾아다닌다, 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경전을 들춰 본다고 해서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든 알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죠.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 절름뱅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는 50% 무(無)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절름발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 짝을 마저 일으켜 세우는 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눈은 애꾸입니다. 눈 한 짝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짝을 마저 뜨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자리에서만이 일체 만법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체험을 안 한다면 그건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것을 습득을 해서 모든 관습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뭘 그렇게 알아야 하고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웠고 잘났고, 똑똑하고 못났고, 못하고 못 배웠고 이런 거를 몽땅 다 놓는 겁니다. 놓는 거라고 하니까 놓는 거에 또 걸리지 마십시오. 내 육체를 나라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하거나, 내가 가졌다고 하거나, 모든 걸 나라고 일으켜 세운다면, 모두 둘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가 연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녹질 않아요. 과거에 입력된 것이 살살 나오는 위에다 또 자꾸 업을 지어서 미래에 나오게끔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입력되는 거는 미래에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아닌 저장이죠. 여러분이 그 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육을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 신을 두고 남의 신을 찾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신(自神)을 두고! 자신은 정신계에 속하고, 육은 현실계에 속하는 겁니다. 항상 육은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주인한테. 그러니 잘못 돌아가는 거는 거기다 되놓고 잘 돌아가게 해서 서로가, 누가 더 높고 얕음이 없이 상통하면서 같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유심(有心)에서는 도저히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작용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뭣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틀리지, 이게 옳지!' 이런다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따져야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 봤자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맞지, 저렇게 해야 맞지!' 하고 자꾸 잔소리가 심하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전자와 전자가 어떻게 마주 붙어서 불이 들어옵니까? 네?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려고 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은 진짜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먹만을 믿고 주먹에서 나오는 거 주먹에다가 도로 놓는 마음! 이 세상을 다 지닌 한자리, 그 주먹 아닙니까? 허허허.





그림 · 최주현

어머니와 화합하고 싶어요

질문 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마음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무슨 인연인지 사사건건 마찰이 생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어머니와 화합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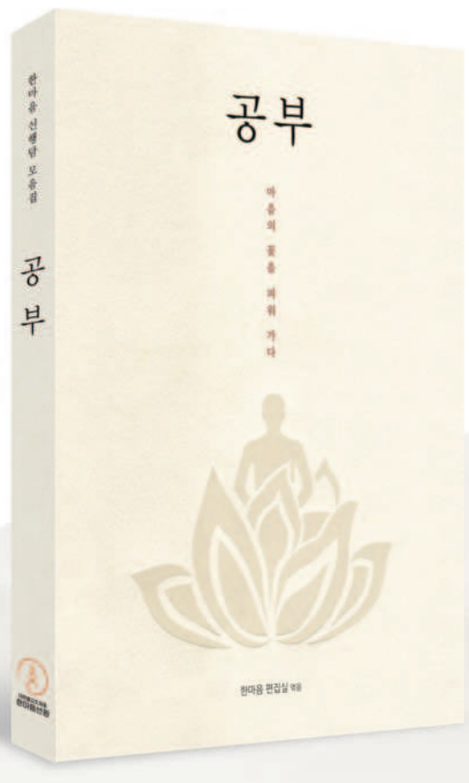
답변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과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선생님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남한테 전가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부모가 성가시면 "어이구!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깡통은 깡통전에 깡통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지간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깡통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죠? 소리가 납니다. '넝마는 넝마전에 모여 있고'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것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온통 이 야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 가지고 철모를 때 빼고 잘 때 빼고 늙었을 때 빼면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패기 있고 자유스럽게, 좋으면 껄껄 웃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 벗어날 수 없다

☞ A17면에서 계속

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냥 난 우스워 죽겠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요, 어떤 때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차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그렇게 퍼져 나오지 않느냐, 울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도인 없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오면서 보니까 네 살 먹은 애가 차에 치여 죽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고것도 도인이더라고요, 하하하…. 여러분! 글쎄, 생각해 보세요. 개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있는 거고 있다고 해도 없는 거고, 사람에 따라 차원에 따라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도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리저리 둘러보고선 차가 오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곤 차가 딱 지나가니까 쏜살같이 건너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개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하고 웃고 들어오면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참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애썼느냐." 하고 이렇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니, 뭐?" 이렇게,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 먹을 것에도 착을 두지 않아야 들어와요. 돈도 착을 두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병고도 탁 놓고 '네가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모두 뭉치게 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아, 이러고 탁 놓으니까 이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달아나가는 것입니다.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질문 저는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면 어떤 날은 '그래,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좋은 마음이 나가는가 하면 어떤 날은 바로 험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아, 내 마음에 악과 선이 동시에 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악과 선을 오가는 제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요.

답변 이거 봐요. 악과 선이 어찌 없겠소? 동시에 모두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란 놈이 도둑질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죠. 그러니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악한 짓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착하던 사람도 앞에 딱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딱 닥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이것을 참선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을 나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하겠느냐. 마음을 바로 쓸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나쁜 상황이 앞에 딱 닥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 강도가 어느 수풀 속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인이 어린애를 안고 업고 걸리면서 엉엉 울고 가더랍니다. 밥도 못 먹였는지 "엄마, 밥 줘! 밥 줘!" 하고 울고 가는데, 참혹해서 볼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닌 척하고선 "어린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먹을 것도 없거니와 남편도 붙잡혀 가서 영 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집도 오막살이 있던 거를 뺏기고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전대를 해 가지고 있던 거와 먹을 거를 좀 훔쳐 뒀던 거를, 전대 돈은 가서 오막살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먹고살라고 주고, 자기 먹으려고 집어온 거는 그 애들을 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구나.' 아니,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요거, 잠깐만 얘기하죠. 우리 신도가 집이 없어서 남이 금방 지어 놓은 집을 빌려서 "팔릴 때까지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집은 좋지만 그냥 자기는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락에다 넣고선,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에 먹일 것도 없고 차비 줄 것도 없어서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집이 좋으니까 도둑이 들어왔더랍니다. 하하하. 뛰어넘어 가지곤 다락을 통해서 방에 들어오려고 다락에 뛰어올라 갔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따리 보따리만 있고 속을 풀어 보니까 헌 누더기 뭐, 이불 나부랑이 살림 나부랑이 뭐, 이런 거거든요. 다락에서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안에서 "아이, 내일 아침에 애들 밥은 어떡하며, 차비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타령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인공, 당신만이 이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당신만이 먹일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을 때에 '주인공은 뭐고?' 허허허…. 주인공은 뭔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당장 어린애를 보내지를 못하고 먹이지 못한다는 소리에 그만 이 도둑이 가슴이 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첫 번, 두 번째 해 가지고 와서 세 번째 들렀는데, 그 도둑질해 온 거를 다락문을 가만히 열고는 거기다가 내놓고서는 다락문을 또 타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이것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되뺏기고 가네!" 이러더랍니다. 하하하. 그러니 도둑놈이 어찌 도둑놈만이겠느냐 이겁니다.

> **이 마음의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서 굴릴 수 있는**
> **그런 자유인이 된다.**

그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와서 깔깔 웃으면서 "스님! 주인공이 이렇게도 살리는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둑이 도둑질한 걸 갖다 줘서 애를 무난히 학교에 보내고 쌀 한 가마니 사고 또 연탄 사고 애들 등록금도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러게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지 마라, 음? 모두가, 그저 죄가 뭐가 죄겠어? 다 모르는 게 죄고 순간순간 나오는 대로,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환경에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외려 더 불쌍하지. 뭐가 나쁘고 좋고가 따로따로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은 없습니다. 허허허….

저도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

질문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걸림이 많습니다. 마음에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은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못 믿어요. 다른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허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자기는 못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가는 그 놈을 자기가 왜 못 믿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 보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일을 하게 하는 놈, 하기 싫게 하는 놈, 싸움을 하게 하는 놈, 성이 나게 하는 놈, 이 모든 놈들이 전부 한 놈입니다, 한 놈! 그거를 표현을 하기를 "아버지가 될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나, 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사위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뜻도 행도 그렇게 바뀌지면서 돌아가는데 어떤 딴 놈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법이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놈이, 한 놈이 그렇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벌어진 것을 용도에 따라서 들이고 내는 데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니까. 그 한 놈이 누구입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우주를 싸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전에도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일체 만물은 연결 연결 연결돼서 바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각자 마음마다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둘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라고 놓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옥이나 천당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돼지같이 살면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뱀같이 살면 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고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질문 저희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인공에 맡기고는 있으나 너무 힘이 듭니다. 관도 제대로 안되고 집중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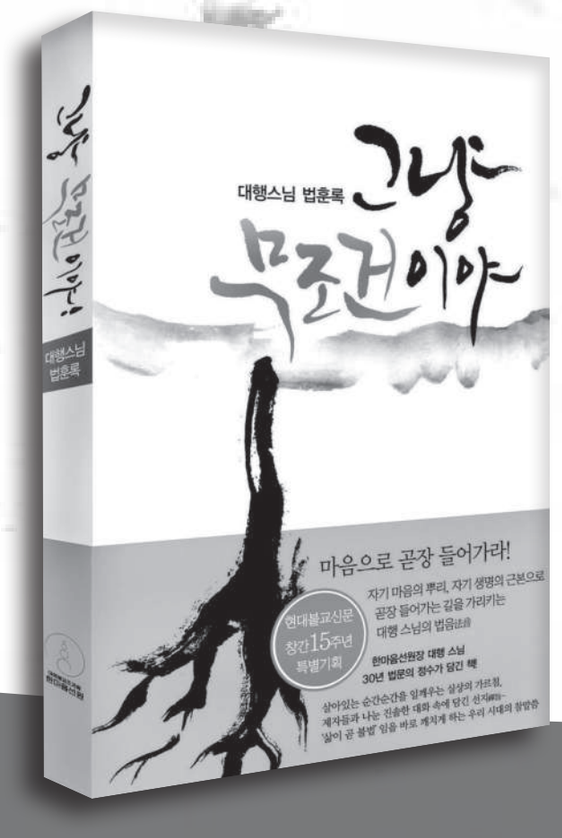
답변 죽고 사는 거를…, 그건 개널럴래같이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죽고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 겁 안 냅니다. 그런 게 겁나면 나질 않았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 이게 안 되면 죽는데….' 이런 착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우리 식구가 다 죽는데….' 이런 걸 버리시란 말입니다. '다 죽는데' 하고 지금 심부름꾼 자기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인이 걱정할 거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걱정을 한다고 그게 일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급하다고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한단 말입니다. 그럴 땐 어떤 때는 "급하면 좀 참아라." 그러고 어떤 땐 좀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좀 기다리라는 시간에, 절을 천배, 삼천배 하고 이러기 이전에 내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리면 죽고 사는 거를 다 그냥 거기다 포기해 놓고 '너만이, 살릴 수 있다면 너만이 살릴 수 있고, 또 이 몸을 옷을 벗게 하려면 네가 벗게 해라. 네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 하고 맡겨 놓고, 또 그렇게 맡겼는데도 안 돼서 진짜 식구들이 죽게 됐을 때도 '어, 죽게 하는 것도 너야!' 이러고 놔 봐요, 좀. 패기 있게! 용맹하게!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배워도 한 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물며 이런 만사 만생을 다 이끌어 가지고 나갈 이런 공분데 그런 고비도 없겠습니까? 또 착을 붙이지 않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런 게 붙습니다. 자기를 발견을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얘깁니다. 발견을 했어도 어떻게 이게 흐리마리하게 발견이 됐는데 인제는 자꾸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솔솔 되다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되다가 안 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딴 데서 또 안 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하!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물론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의심을 하고 또 부르르 뛰어오겠죠.

그러나 그걸 한번 뒤집어서 잘 생각을 해 보신다면 딴 자리에서 팥죽 방울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나오지, 딴 데서 들어와서 팥죽 방울이 생길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 요 안 되는 것도 바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볼 양으로 테스트하는 거로구나.' 하고 '아하! 요거를 뒤집어서 또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그거를 딱 집어서 거기다 되돌려 놨을 때 세상만사가 태평하고 껄껄거리고 웃음이 날 정도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진짜로 그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갑질에 대처하는 부처님 말씀



이미령
칼럼니스트

바라문 출신 젊은 스님의 고민
"왕족 계급 붓다 제자라고 비난"
출가 전 계급, 사람들에 시달려

지위 낮은 사람에게 폭력 행사는
현재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체육계 폭력 · 미투가 이를 보여줘

부처님, 갑질러들에게 혹독 비판
"행동 고결하지 못하면 곧 노예"
서로 진정한 벗 되는 慈心도 제시
단호하며 따뜻한 대처를 본받자

초기경전 니까야에 들어 있는 이야기다. 최고 계급이라 일컬어지는 바라문 출신인 젊은 스님 한 분이 영마음 속이 복잡했던 모양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분인지라 부러 그를 찾아가 넌지시 그 사정을 물으신다. 뜻밖에도 제자는 이런 속내를 털어놓는다.

"저와 같은 바라문 사람들이 제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붓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인 제가 어찌 저보다 낮은 신분의 고타마 붓다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출가 전 부처님의 신분은 왕족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러니 바라문보다 낮은 계급인데 그런 자의 제자가 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은 더 복잡하다. 승가에는 신분 계급 차별 없이 오직 진리를 존중하고 수행하려는 자들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데, 낮고 천한 자들과 어찌 한데 어울려서 지내고 있냐는 것이다. 젊은 스님은 출가 전 계급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니까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에 높낮이를 정해놓고 심지어 거기에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는 가치평가까지 내리던 시절이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사람을 나누는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등에 업고 온갖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자신보다 덜 가지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자신보다 체력이 약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가차 없이 유세를 떨고 있다.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다. 유세를 떠는 정도의 폭력이 아니라 물건을 던지고 주먹질을 해대고 심지어 성폭력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 모진 수모와 폭행을 함부로 부리는 이들에게 '모두가 평등하다' 고 따뜻한 법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견디라며, 그런 상태를 수행의 일종으로 삼으라고 다독이셨을까. 그런 법문은 기대하지 말자.

부처님은 매우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기 핏줄의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이에게는 그들의 가문에 깃든 출생의 비밀을 터뜨리신다. 그대들 조상 몇 대쯤에 이런 '얼룩' 이 있는 걸 알고서 그리 행동하느냐는 일갈이다.

게다가 노예나 천민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행동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고결하지도 못하다면 그게 바로 노예요 천민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잘난 핏줄이라면 행동도 잘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낮고 약한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고 유세를 떨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악업의 과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하지만 따뜻한 대안도 있다. 유명한 자심(慈心)이 그것이다. 흔히 사랑, 자애로 번역하지만 이 말에는 우정이란 뜻이 담겨 있다. 상대방을 내 벗으로 맞아들이는 마음인 자심은 배려심(配慮心)이라 옮겨도 좋을 듯하다. 배(配)란 짝, 파트너란 뜻이 아닌가. 상대방은 함부로 대해도 무방한 존재가 아니라 나만큼 소중하고 나의 진정한 벗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심이다.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라는 말이 나왔나보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한 대안으로 갑질을 대처하는 부처님의 방식을 배울 만하다.

갑질의 횡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론을 장식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갑질의 폭력은 더 많고 이제 시작이라고들 한다. 무얼 믿고 저리 행동했을지 묻고 싶다. 저들의 횡포를 보자면 세상에 둘도 없는 싸구려들의 삶을 보는 것만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마음산책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대학생 김 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만 되면 우울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 근처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서다. "남들은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는데 난 돈을 벌어야만 하다니"하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카페에 있을 때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어차피 시간당 급여를 받으니 손님이 적을수록 일하기도 편한 것이다.

그러다 명상수업 시간에 자애명상 등 마음을 내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모두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남을 축원하는 것이 곧 자신을 축원하는 일이라는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매 수업시간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하고 함께 마음을 보냈다. 반복하다보니 신기하게 자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어느 날 알바를 하며 커피를 만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 손님이 행복하시길' 하고 마음을 보냈다. 미소가 지어지면서 마음이 환해졌다. 왠지 행복해졌다.

이전에 김 군은 자기는 을이라고만 생각했고, 손님을 대할 때 별 힘이 없다고 여겼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자 마치 자신이 카페 주인이라도 된 듯, 오는 손님들이 반갑고 신이 났다. 위치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마음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토요일은 돈도 벌지만 스스로 '사랑 커피' 를 만드는 날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남을 생각할수록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놀랍다"고 회자했다.

임제 스님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라고 했다. 갑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인의식이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을이라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 전체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다면 지위만 갑인 사람보다 마음 차원은 더 높은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역사상 더 힘든 때도 많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문지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구 선생은 유명 인사지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주인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역사상 지위와 학력과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신 수많은 이름 모를 조상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손님은 남 탓을 하고 남이 해 주기를 바라지만, 주인은 책임을 지며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지금 한번 마음을 돌아보면 어떨까.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은 주인인가 객인가.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무늬만 주인인 객으로 지내고 있는가. 대행 스님은 "일체는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에 달려 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새해에는 보살로 살 것인가, 중생으로 살 것인가. 전 국민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펼쳐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조계종 화합의 첫 걸음 기대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기해년 한 해의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36대 집행부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종단안팎의 갈등이 수습되는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혁신동력의 기틀 마련을, 대외적으로 사회평화 정착 기여를 주요 기조로 삼았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7대 종책을 세워 순차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종책보다 눈길을 끈 것으로는 기자회견 시간을 꼽을 수 있다. 제36대 집행부의 기자회견은 과거 어느 집행부보다도 짧은 시간에 끝났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지 않았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현재 조계종단 안팎의 분위기가 갈등에서 화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조계종의 신년기자회견을 돌아보면, 항상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항상 질문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이로 인해 종단의 종책보다 질의응답이 더 큰 화제로 조명되곤 했다. 이제야 종책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조계종은 갈등 봉합의 분위기에 맞춰 올해 '화합과 혁신위원회' 를 통한 종도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듯이 중앙종무기관이 파악하기 힘든 풀뿌리 불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수년간 갈등과 반목, 의혹과 논란으로 떨어진 장자종단의 위상이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화합의 첫 걸음으로 다시금 올라가길 기대한다.

공정한 동국대 총장 선거 바란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로 1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총장 후보에 11명이 등록한 것은 역대 최다로 알려졌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장 선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는 1월 18일 지원자 자격심사 · 최종 후보자 수를 의결한다. 1월 22일에는 로터스 홀에서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가 있으며, 1월 28일에는 공개토론회가 동국대 총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이들 소견 발표와 공개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1월 30일 열리는 총추위 전체회의서는 최종 후보자 3~5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7, 8일 경 열리는 회의에서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제19대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동국대는 지난 4년동안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총장을 선출함에 법인 · 교수 · 직원 · 학생들이 머리 맞대고 선출 시기 · 방법을 논의했던 것도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 시도는 불발로 끝났지만, 당시 논의돼 공감대를 형성했던 공개토론회의 첫 개최는 분명 진일보한 결과다.

접수된 인사를 살펴보면 내부 인사 9명, 외부 인사 2명으로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사들이다. 이제 후보 대상자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학교 발전 구상을 공약으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그리고 총추위원들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신공격과 음해는 동국대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이다.

이번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져 학교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안심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길 (도기동167)
• 주 지 : 자봉 (속명 : 최해룡)
• 승 번 : 01-12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관쌍수로 발현하는 '자비' 수행처



자비경선은 행복이다 스님을 따라 자비경선을 하는 수행자들의 모습. 보리를 구하는 수행자들에겐 산문이 따로 없다. 보리선문을 끼고 스님 뒤로 걷는 수행자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단촐한 단청 등 조경이 수행자들에게 맞게 구성되어 있다.

'마음쉼터를 가다'

①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눈덮인 자비선명상원 전경. 성주 백화산 자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다.

성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바야흐로 명상의 시대다. 과거 묵언수행, 벽면수행 등의 형태로 알려지기도 한 명상은 그동안 기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마음수행, 즉 명상에 쏠리고 있다. 명상은 단순히 '힐링'을 넘어 '자기 성찰을 통한 자아실현의 극대화'의 수단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적도 드문 깊은 산 속도 마다하지 않고 명상수행처를 찾아가서 정진한다. 적막하기만 한 곳에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불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세속에서 다양한 수행처가 생겨나는 지금, 불교 내에도 현대화된 명상수행처가 생겨나고 있다. 전통적인 사찰의 면모에서 벗어난 명상센터와 명상마을이 그 것이다.

이 연재는 불교가 마음수행의 본고장으로 현대화, 체계화되고 있는 곳을 찾아 우리의 눈과 귀를 맑혀보자는 데 취지가 있다. 현대인들이 마음 편히 찾아 쉴 수 있는 불교만의 마음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자 신분으로 허락된 시간은 짧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탐방 자체가 행복이었다.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서울의 남부터미널을 출발해 첫 명상수행처인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중 하나는 이 취재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이란 점이었다.

백화산 정기 흐르는 '자비선명상원'

첫 탐방처인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을 방문한 1월 중순은 추위가 한풀 꺾인 시점이었다. 취재길도 겨울날씨 답지 않게 포근했다.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30분 남짓 가야산 줄기의 백화산 기슭에서 작은 솟을대문 형식의 일주문 앞에서 지운 스님이 기자를 반겼다.

지운 스님은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을 내려놓고 '자비선명상'이란 수행법을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정신적인 괴로움에 몸은 무겁고,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강사 소임을 내려놓고 수행을 하게 됐다. 망가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자비선을 창안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자비선명상원 초입에 세워진 개산기에는 스님의 고뇌가 비쳐졌다. 스님은 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소임을 회향한 뒤 두문불출했다. 교계에서는 어디에 주석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미얀마에 가 초기불교 수행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 한국불교 대표 수행인 간화선과 회통해 일반 대중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법을 정리했습니다. 그 것이 '자비선(慈悲禪)'입니다. 이후 이 수행법을 전하는 곳을 고민했는데 시절인연이 닿아 2006년 이 곳에서 자비선사, 자비선명상원을 열게 됐습니다."

자비선명상원은 나지막한 백화산 중턱의 3000평 가량의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좌우에 산자락이 펼쳐지는 아늑한 곳에 명상센터 뒤편에는 전통사찰 양식의 대웅전과 전각이, 우측에는 걷기명상을 위한 포행길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전통양식과 현대화된 건물의 조화가 눈길을 끌었다. 단청을 최소화한 단촐한 양식에 오밀조밀한 조경까지 수행하는 이들을 위한 스님의 배려가 돋보였다.

지관 쌍수의 '자비선명상'

이 자비선명상원에서 전해지는 '자비선명상'은 무엇일까. 불교의 '자비'와 '선', 그리고 '명상'이 하나로 모인 이유가 있었다. 스님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란 차원에서 자비를 바탕으로 하며, 간화선과의 회통한다는 의미에서 자비선이다. 자비선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라는 두 가지 수행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집중 · 통찰로 지혜 증득
자비수관 · 다선 · 경선
세가지 현대화 수행법 개발
2006년 명상원 세워 보급

불교전통 · 현대 어우러져
수행시설 '호선당' 등 눈길
걷기명상길 백화산에 조성
전통사찰과 명상시설 조화

스님은 '자비선은 결국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지관쌍수(止觀雙修)의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수행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두 가지로 설명가능합니다. 자비선은 이 두 가지를 기반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다만 외형을 현대화된 자비선명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마타는 집중하여 선정에 드는 과정이고, 위빠사나는 이를 통찰하여 지혜를 얻는 과정이다. 두 수행마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선호도나 편차가 있다. 스님은 그 근기에 맞게 접근하고 있는 듯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층 더 자비선명상법이 궁금해졌다. 스님은 "자비선명상법에는 자비수관(慈悲手觀), 자비다선(慈悲茶禪), 자비경선(慈悲鏡禪)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자비수관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으로 손을 집중의 방편으로 하고 있다. 조용한 장소에서 집중력을 요하는 다른 수행법과 달리 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자비수관은 비교적 쉬우면서 단기간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법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토치현 순례길 걸으며

B5 문화
현담 허락 법화경 금니사경 초대전

B6 학술
초기불교의학 연구 논문 2편 '눈길'

자비선 통해 '분노 · 탐욕' 녹여낸다



명상원 우측에 자리한 걷기명상길. 백화산 일대에 연꽃밭을 두고 펼쳐져 있다.



명상원을 찾은 수행자들이 삼매에 빠져 있다. 자비수관을 통해 몸의 감각에 집중, 삼매에 들면 알아차림으로 감정의 흐름을 조견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 경지까지 이르면 '나'를 여의고 대자비심이 발현된다.



호선당 시설 중앙에 위치한 반가사유상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수행자들의 모습.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B1면에서 계속

"불보살 수인(手印) 중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심을 표현한 시무외수(施無畏手)가 있어요. 자비수관은 자비의 표현인 이 '마음의 손'을 시각화한 것으로 집중을 극대화시켜서 마음속 사랑과 연민을 일깨우는 방편입니다."

스님은 "자비수관 수행을 통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 5대에 자비심을 불어넣으면 그 기운이 새롭게 생성돼 기존의 습관을 없애게 된다"며 "자비수관을 통해 몸이 사라지는 상태를 미리 경험하고 이 상태에서 탐진치를 없애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수행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몸 여의면 지혜 솟아난다

스님은 먼저 자비수관을 통해 몸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했다.

"몸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업식이 나타납니다. 슬픔, 분노 등 감정적 고통이 올라올 때는 자비의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비의 손으로 스스로를 쓰다듬으며 살피면 이 것이 무상고임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몸의 형태가 사라지고 마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공성을 깨닫게 되면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듯 보였다.

몸의 소멸을 통해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이란 점을 알게 되고, 그동안 알고 있던 앎의 체계를 바꿔 다시 자비심 발현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알아차림을 통해 순간만이 있음을 깨달아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인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법(法)을 가로막은 업을 녹이고 삼법인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 마음과 몸이 저절로 청정해 지는 것입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취재에 대한 압박과 글쓰기에 대한 잡념 등이 사라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손으로 무릎을 잠시 쓰다듬으며 스스로 마음상태를 살펴보니 계속해서 끄달렸던 무거운 짐과 같은 걱정들이 조금씩 멀어져가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났다.

스님은 "이 시대는 자비가 필요한 시대다. 우리 사회의 탐욕과 분노, 갈등을 여의는 길이 바로 자비심 발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비다선 등 현대화 방편 갖춰

자비선명상원에서는 차(茶)를 매개로 하는 자비다선(慈悲茶禪)과 걷기명상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비경선(慈悲鏡禪)도 전하고 있었다. 이날 집중수행을 하고 있던 이들은 자비선 수행을 통해 일정부분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간 집중수행을 마친 서정철 씨는 "자기 스스로 관찰하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생기고 또 알아차림으로 감정의 휩쓸림이 줄어든다"며 "처음에는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 변화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자비 손'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마음챙김을 하게 됐다. 사회에서 이분법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커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 대한 마음의 쓰임이 커지며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좀 더 즐겁게 생활하게 된 듯 하다"고 말했다.

초심수행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지운 스님이 개발한 차를 통해 명상법 '자비다선'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자비다선은 앞서 자비수관의 손의 역할을 다법이 대신하는 것이다.

스님은 2002년 BTN불교티비에서 최초로 차명상 강의를 한 데 이어 동국대 대학원에서 차명상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을 맡는 등 차를 통한 명상법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로 자비선명상원을 찾은 이선미 씨는 "자비다선의 경우 사회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들과 커피 등을 마시면서도 스님의 가르침을 응용해 마음챙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비선을 널리 전하기 위해 지운 스님의 하루는 바쁘기만 하다. 대구불교방송 등 대중강연과 함께 서울과 대구, 부산 등의 자비선명상센터에서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강의와 최근에는 스님들을 위한 명상지도자 승려연수과정인 보리학당도 개설했다.

자비선명상원은 기도나 천도재 없이 오롯이 수행을 통해 운영되는 곳이었다. 매달 이 곳을 찾는 이들은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후원회원이 되고 있었다. 그 수가 500여 명에 달하고 현재 성주의 명상원에 이어 서울과 대구 부산,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등에 자비선명상센터를 일군 원동력이 됐다. 후원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발전하는 이 곳을 보니 불교명상의 힘이 느껴졌다.



수행시설 호선당 전경.

'자비' 발현, 고통의 감정 치유

몸 쓰다듬으며 집중 · 통찰

스스로 연민, 고통 여의는 과정

차 · 걷기 등도 활용한 수행



지운 스님은 자비선명상 뿐만 아니라 차명상 분야를 개척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계종 단일계단 위원으로 있으며, 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로 있다.

자비선 명상 프로그램

대승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명상, 지혜를 논하다'
서울 중구 자비선명상센터
1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02)2263-8874

스님들 위한 경론강의 · 명상실습
'보리학당'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1월 18일부터 매월 셋째주 금토 1박 2일
(054)931-8874

자비선명상 지도자과정
'명상실습 · 명상코칭'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3월부터 월1회 강의 진행

어린이 자비선명상체험
'겨울 숲속 명상학교'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1월 25일부터 27일 2박3일

자비선명상원 가는 길

서울 |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합천행(고령) ▶ 고령터미널까지 시외버스 이용

부산 |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거창행(고령) ▶ 고령터미널까지 시외버스 이용

이제는 수소수 건강시대! 물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집니다!

왜 수소수 수소수 할까요?
수소수 한잔으로 놀라움을 체험하세요!

수소수란?
물분자들(H_2O)사이에 수소분자(H_2)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음료 캔에 담겨 비싸게 팔리는 수소수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물입니다.

상상수소샘의 특징
1 몸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소수 생성력
2 은은한 LED 조명이 추가된 멋진 디자인
3 6중 티타늄 백금 시스템으로 반영구적 사용



상상수소샘디스펜서(고급형) SSP-3000

2019년 신제품 출시
더욱 강력해진
상상수소샘 디스펜서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_2O)에서 산소(O_2)와 수소(H_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특허기술



BIO 상상바이오 문의 1577-7217 www.sspark24.com

단조로운 길 위에서 수행 의미 찾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⑬ 토치현 순례길 걸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모기가 없을 것이란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다. 몰려오는 모기들을 피해 지친 몸을 끌고 갈 곳은 없었고, 결국 판초우의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는 수밖에 없었다. 잠결에 내 코끝에 모기가 한 마리 붙어 있던 것까진 기억이 난다.

아침 해가 어슴푸레 뜰 새벽 무렵, 모기들의 극성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이상하게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세수를 하러 근처의 공중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의 거울을 보는 순간 그만 너털웃음을 내고 말았다. 침낭 밖으로 나와 있던 얼굴만 잔뜩 모기에 물린 것이다. 재미삼아 몇 곳이나 물렸는지 세어보니 88곳이 물려있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있나.

'누가 88개소를 다니는 순례자 아닐까봐 얼굴에까지 번호를 매겨두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열이 나 화끈거리는 얼굴을 차가운 물로 여러 번 씻고서 약을 발랐다.

침낭을 정리한 후 배낭을 싸고서 다시 미쿠로도에 들어갔다. 코보 대사가 젊은 시절 이곳에서 수행하던 일을, 대사는 스스로 이렇게 남기고 있다.

'토사국(土佐國)의 무로토노 사키(室戶崎)에서 일념으로 수행하였다. 그러자 샛별이 날아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하여 수제자였던 신제이(眞濟) 스님은 자세한 설명을 남겨두었다.

'토사지방의 무로토노 사키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샛별이 입으로 들어왔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이적을 보임은 대사의 고행과 절개로 인한 것이다.'

코보 대사는 이곳에서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을 수행했다. 앞서 순례했던 21번 타이류지나 다른 곳에서도 수행했다고 전해지지만, 많은 기록과 전설이 코보 대사가 구문지법을 성취한 곳이 이 동굴이라고 전한다. 동굴 천장 한 켠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커먼 검댕이 붙어 있다. 코보 대사를 따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증거다.

뒤를 돌아 동굴 입구를 바라본다. 떠오르는 아침햇살이 동굴을 비춘다. 비록 샛별이 내 입안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밝은 햇살이 나를 비춰준다. 어젯밤 모기에게 시달린 것도 잊고 내가 지금 시코쿠를 순례하고 있단 사실에 큰 감동을 느꼈다. 동굴안의 불단을 향해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시 힘내서 걸어가겠습니다."

24번 사찰을 향하는 길로 방향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고갯길을 40분가량 오르자 산문이 나타났다. 아직 납경소의 문도 열리지 않았고, 청소하시는 거사 혼자 빗자루로 본당 앞을 쓸고 있었다.

호츠미사키지의 이름은 '불이 빛나는 곳' 이라는 뜻이다. 옛날 절 옆의 바위 위에 불을 놓아 어부들이 등대로 쓰던 데에서 유래했다. 지금도 그 자리에는 등대가 서있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1872년까지 이곳은 여인금제(女人禁制)의 도량으로, 여성 순례자들은 등산로부터 들어 올 수 없었다. 대신 등산로 옆의 여인당(女人堂)을 참배하고서 다음 사찰로 향했다고 전해진다.

본당과 대사당을 차례로 참배하고 납경소를 향하니 때마침 문이 열려있다. 납경소 직원 분이 내 얼굴을 보곤 말을 붙인다.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 노숙하다가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노숙을 했습니까?"

"미쿠로도 앞 바위틈에서 노숙을 했는데 이리 됐네요."

"아휴, 거기는 모기가 많은 곳이에요. 차라리 다른 동굴이 좋았을 겁니다."

아침 첫 납경을 받고선 25번 사찰을 향해 걷는다. 차도를 따라 구불구불 내려가는 길은 멀리 태평양이 펼쳐진 장관이다. 다음 사찰까지는 약 7km로 원래라면 2시간 가까이 걸을 길이지만 내리막이 1/3이나 되다 보니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25번 사찰 신쇼지(津照寺)는 재미있는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에 홀로 우뚝 서있는 언덕의 정상에 본당이 있고, 산 아래에 대사당과 요사 등이 모여 있다. 가파른 계단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배낭을 메고 올라갈 자신이 없어 먼저 납경소를 들렀다.

납경소에 부탁해 대사당 한 곳에 배낭을 두고서 정상의 본당을 향해 올랐다. 24번 호츠미사키지를 오르는 길은 그래도 산길이라 편했는데, 이곳은 그저 돌계단이 이어지니 다리가 비명을 질러댔다. 정상을 오르니 시멘트로 만든 본당이 비좁게 서있었다. 대사당과 요사는 전통적인 건물인데 본당만 생뚱맞은 시멘트 건물이라 이상하게 여겼는데, 비바람이 워낙 거세 전통적인 목조 건물로는 버틸 수가 없단다.

신쇼지의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예로부터 수많은 영험담이 전해져 유명하다.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토사의 영주가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태풍을 만나 뱃길을 잃고 말았다. 이때 한 스님이 나타나 키를 잡고 뱃길을 안내했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고서 스님은 당신의 사찰로 간다며 사라졌다.

영주가 스님을 불러 치하하기 위해 사람을 시켜 신쇼지에 보냈더니 스님은 없고 본당에 모셔진 지장보살상이 물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신쇼지에 모셔진 지장보살상을 바닷길의 안전을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모시고 있다. 별명도 '키잡이 지장님' 이다.

납경소로 내려와 납경을 받곤 늦은 아침을 먹을 겸 미숫가루를 먹고 있노라니, 한 서양인 할아버지가 납경소로 들어선다. 나를 보곤 서툰 일본어로 물어본다.

"여기가 본당인가요?"

나는 영어로 대답했다.

"아니요. 여긴 대사당이고, 본당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해요."

"어! 당신 일본사람 아니죠?"

"네, 한국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발음이 일본 발음이 아니네요."

할아버지는 본당을 향하는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내 옆에 앉았다. 미국에서 왔다는 할아버지는 미국에 사는 일본인 친구에게 이 길에 대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두 권의 납경장에 납경을 받고 있다며 납경장을 보여줬다.

"그런데 대체 이 글들은 무슨 뜻인가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사찰에 모셔진 부처님의 이름과 도장들이에요."

"그런 뜻이었군요! 난 다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지난 밤의 피로가 싹 날아갔다. 다시 힘내서 걸을 시간이다. 오늘의 목표는 26번 콘고쵸지(金剛頂寺)까지 순례하고, 다시 17km 정도 떨어진 마을인 타노(田野)까지다. 타노역 앞 휴게소에서 노숙할 생각이지만, 제발 모기가 적길 바랄 뿐이다.

26번 콘고쵸지까지는 4km 남짓한 바닷길과 야트막한 산길이 이어진다. 산 중턱에 시원하게 자리 잡은 콘고쵸지의 본존은 약사여래불. 코보 대사가 기도를 하며 조성했다는 불상은 본당이 완성되던 날 스스로 수미단 위로 걸어 올라가 자리에 앉으셨다고 한다.

콘고쵸지의 대사당도 재미있는 전설이 전한다. 코보 대사가 이곳에 콘고쵸지를 세울 때 이 산에 살던 텐구(天狗)들이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했다. 텐구는 일본에서 불교를 방해하는 요괴로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육도윤회와 별개로 텐구도(天狗道)가 있다고도 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한다.

이에 코보 대사는 텐구들을 모두 불러 담판을 지었다. 대사의 덕망과 불법의 높은 뜻에 교화된 텐구들은 대사가 있는 동안은 경내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찰이 완공되고 대사가 떠나면서, 혹시 텐구들이 사찰을 침범할까 자소상을 만들어 나무에 올려둔 곳이 지금의 대사당이다. 혹 지금 모셔진 대사상이 당시의 대사상인지 궁금해 납경소에 물어보니 당시 대사상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를 모사해 조성한 상이 봉안돼 있단다.

콘고쵸지까지 순례를 마치니 이제는 잠자리를 향해 하염없이 걸어갈 시간이다. 바다를 끼고 계속해서 걸어가자니 역시나 지루하다. 몇 번이나 버스를 탈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걸어온 것이 아까워 꾸역꾸역 걷는다.

어느덧 해는 서쪽 하늘에 걸려가고, 주황빛 노을이 건물들을 비출 쯤 타노역에 도착했다. 역 앞의 휴게소에서 노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침낭을 펼만한 장소가 안 보인다. 염치 불구하고 역 직원에게 노숙할 곳을 물으니 휴게소 뒤편 공터로 안내한다. 노숙하는 순례자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잠을 청한다고 한다.

한 바퀴 둘러보니 전기콘센트며, 수도, 화장실도 근처에 있다. 잠시 앉아서 가만있어보니 모기가 달라붙지 않는다. 그야말로 최고의 잠자리 아닌가! 해가 지길 기다려 침낭을 펴고 누웠다.

내일은 하루 종일 걸어도 27번 사찰을 순례하면 하루가 끝이다. 코치현이 수행의 도량이라 불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여기에 있다. 사찰들 간의 거리도 멀고 길도 단조로워 지치기 쉬운 길. 이 길을 걸으며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행에 녹여낼 수 있을까? 고단한 몸을 침낭 속에 뉘였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25번 신쇼지 본당을 참배하는 일본인 순례자들의 모습.

– 코치현은 사찰 간의 거리가 멀다. 가급적 부식거리를 항상 지참하며 걷자.

– 노숙 순례를 원한다면, 노숙 장소에 대한 정보에 주의하자. 때나 장소에 따라 노숙이 금지되는 곳이 많다.

– 노숙 시 노숙 장소를 깨끗이 쓰고, 공중예절을 지키도록 하자. 매너 없는 행위로 노숙이 금지되는 곳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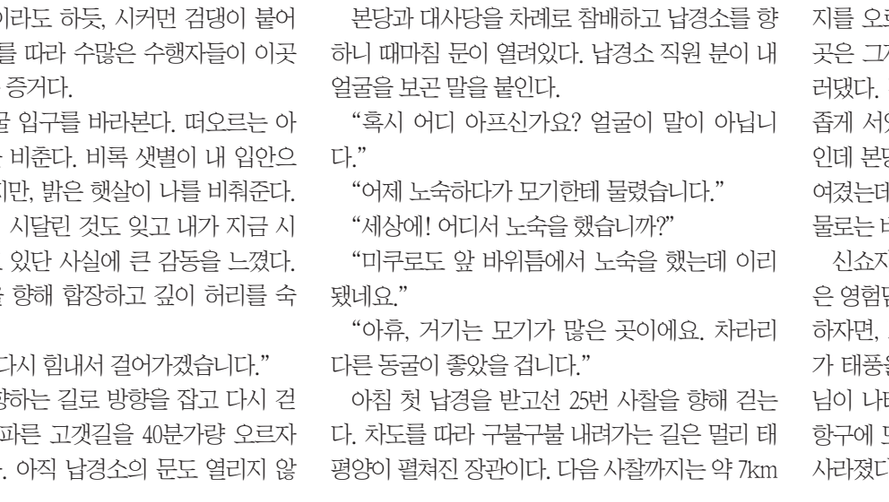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야
25번 사찰 본당 순례 가능
'키잡이 지장' 영험담 눈길

토치 순례, '수행'인 이유를
길고 단순한 길 걸으며 찾아



25번 사찰인 신쇼지 본당으로 올라가기 위한 순례자들. 시코쿠 순례자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오르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장엄하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이번주 신간은… 〈온전한 머무름〉 직메 푼촉 린포체 구술/켄포 소달지 편역/담앤북스 펴냄/1만 5천원



이 책 〈온전한 머무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티베트 라마로 손꼽히는 직메 푼촉 린포체(1933~2004)가 생전에 남긴 말씀을 담은 법문 모음집이다. 직메 푼촉 린포체는 오명불학원(라룽갈) 설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명불학원은 쓰촨성과 칭하이성이 접경을 이루는 써다현 고원산간지대 오지에 있는 티베트 수행처로서 1980년, 직메 푼촉 린포체가 32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시작됐다. 1990년대에는 제자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이 책의 내용은 불교도의 길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과 핵심적인 안내를 담았다. 불법에 관한 귀중한 통찰을 통해 수행자들에게 영감과 격려, 조언을 건넨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1/2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정진 2 (고통을 이겨내는 힘)	지광스님	능인출판
3	선화상인 법화경 강설 (전2권)	정원규	불광출판사	8	새말귀 안내서 (백봉 김기추 거사의 새로운 마음공부법)	김기추/안경애	아침단청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아비담마 종합 해설	빅쿠 보디/김종수	불광출판사
5	해탈장엄론	감뽀빠/진우기	운주사	10	생활선의 열쇠	정혜스님	운주사

자비는 어떻게 깨달음의 발판이 될 수 있는가?

〈연민〉



자비와 공

아날라요 지음/이성동, 윤희조 옮김/민족사 펴냄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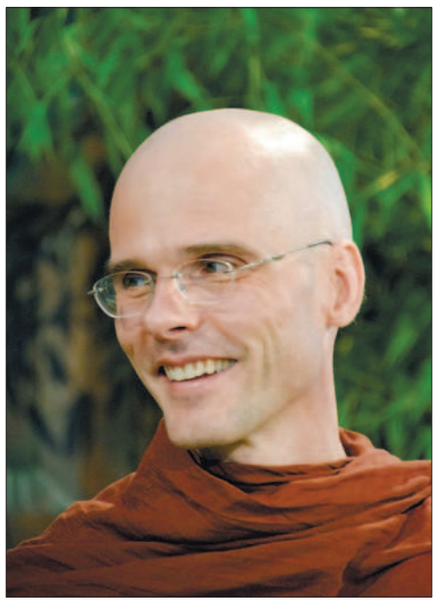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비와 공(空)—아날라요 스님의 초기불교 명상 수업〉(이하 〈자비와 공(空)〉)이란 제목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의 두 주제는 자비(연민)와 공이다. 이 둘은 불교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이다. 특히 대승불교권인 한국불교는 자비 정신을 구현한 보살사상을 그 본질로 한다. 또 공은 연기(緣起), 무아(無我)와 더불어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이다. 자비는 공이라는 불교적 지혜와 결합되지 않으면 잘못 이해될 수 있고, 공은 자비와 결합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 자비와 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저자 아날라요 스님〈사진 오른쪽 위〉은 붓다의 초기 설법 가운데 자비와 공이라는 주제와 연관된 구절들을 빨리 경전, 한역 아함경, 산스끄리뜨와 티베트 경전서 발췌해 섬세히 비교 검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한국에 명상과 심리학 분야 책들을 꾸준히 번역 소개한 정신과 전문의 이성동 선생과 불교학자로서 불교심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윤희조 선생이 공동 번역해 신뢰도를 높였다.

스님의 경전 번역 및 연구 방법론은 〈마인드풀니스〉를 쓴 조셉 골드스타인을 비롯한 서구의 대표적인 명상가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또 한 스님의 글은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간파해 들어가면서도 가슴 깊은 울림을 준다.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아날라요 스님이 직접 수행하면서 터득한 깨우침과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연민의 성격에 대해 탐구한다. 2장에서는 표준적인 사무량심의 틀 안에서 연민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살핀다. 3장에서는 연민을 성숙시킴으로써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 세 장은 공(空)을 탐구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명상을 통해 공으로 점차 나아가는 것에 대해 다룬다. 7장에서는 명상 수행을 하면서 연민에서 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8장에서는 〈업에서 생긴 몸 경〉 〈공에 대한 작은 경〉 〈공에 대한 큰 경〉에 대응하는 〈중아함경〉의 해당 경전의 번역문을 실었다.

자비는 엄밀히 말하면 '자(慈)'와 '비(悲)'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자(慈)'의 원어는 빨리어 'metta'로서, 친밀하다는 느낌과 우정의 태도를 뜻한다. '비(悲)'의 원어는 '연민'을 뜻한다. 아날라요 스님은 자비를 섬세하게 구분해 특히 '연민'으로 번역한 비(悲)의 기능에 주목한다. 그리고 붓다의 초기 설법서 연민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사무량심(四無量心)의 맥락 안에서 그것을 파악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의 첫발을 뗀다. "붓다는 연민으로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초기설법서 붓다가 연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주로 다르마(Dharma)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 가르침을 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베푸는 자 모두 그 가르침을 연민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붓다가 제자들에게 베푼 가르침은 종종 정감 어린 말씀, 즉 스승이 연민 어린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해야만 하는 것을 하였노라는 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붓다가 일단 연민에 가득 찬 스승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 그 다음 순서로 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붓다를 의왕(醫王)이라고도 한다.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라는 뜻이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 연민이 있었다. 초기불교 사상에서 연민의 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런 활동은 붓다가 자신이 깨우친 진리인 사성제를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붓다는 연민에 가득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연민은 윤리적 행위와 명상적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붓다의 연민을 자만심과 자기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동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 연민을 슬픔의 정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연민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슬픔을 피해야 한다. 아날라요 스님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민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슬픔에 젖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불교 대표하는 핵심 개념… 자비, 공

붓다 초기 설법 중 자비, 공 주제 선별

"붓다는 연민으로 사성제를 가르쳤다"

"명상으로 연민을 함양하는 것은 마음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동정을 표하는 대신, 연민의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서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은 슬픔과 탄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한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은 슬픔 대신 긍정적인 마음, 때로는 희열에 가득 찬 마음을 이루게 된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 출발해,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날라요 스님은 연민이 빠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연민을 사무량심의 맥락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애라는 마음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행동과 언어에 스며들어서, 자비에 튼튼하게 뿌리를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됩니다. (…) 연민은 자애라는 잘 확립된 토대에 기반해 가장 잘 계발되고, 여기에 더하여 나머지 두 무량심, 즉 더불어 기뻐함(sympathetic joy, 喜心)과 평정심(equanimity, 捨心)이 연민을 보완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무량심은 어떤 면에서는 연민을 기르는 것을 마무리해 줍니다."

"붓다조차도 평정심이 때로는 적절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런 예는 평정심이 무량심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민에 가득 찬 활동을 하였음에도 사려 깊지 못하거나 때로는 차가운 반응에 직면할 때, 그때는 평정심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지배하고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대신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평정심은 연민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평정심으로 인해 연민에 가득 찬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민에 가득 찬 행동은 필요한 경우 평정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결과를 바라면서도 성공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요구하는 바대로 연민은 평정심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민은 자(慈: 자애) · 비(悲: 연민) · 희(喜: 더불어 기뻐함) · 사(捨: 평정심)라는 사무량심(四無量心, 네 가지 고귀한 마음)과 결합될 때 완전해진다. 연민이 기반하고 있는 자애(慈)는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애착과는 구분된다. 자애의 마음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무한하게 퍼져나간다. 이런 자애는 분노에 대한 해독제이다. 또 연민은 더불어 기뻐함(喜)과 평점심(捨)으로 보완돼야 하는데, 더불어 기뻐함은 다르마를 가르치는 연민에 가득 찬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평정심은 연민의 대상인 중생은 혐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더불어 기뻐함의 대상인 중생은 열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자애의 대상이 되는 중생은 무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민을 포함한 사무량심을 함양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방식이 윤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아날라요 스님은 연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서 물러서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몸, 말, 정신적 행위에 친절함을 결합함으로써 본격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수행 방식은 선방에 앉아서 하는 좌식 수행의 틀을 떠나서 명상 수행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 준다. 명상으로 연민을 계발한 사람은 마음의 잔인함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것이 확립되면 불선(不善)한 행동이 일어날 여지도 거의 없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연민은 자기를 정화하고 내적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준다. 초기불교에서 안거 수행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거 수행은 연민의 활동으로 전환된다. 자기 자신의 유익함과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한 깨달음, 그것을 추구하는 열망이 갖는 변화의 힘을 통해 이런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민은 궁극적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아날라요 스님은 까시나 수행이나 호흡 수행도 수행자를 집중으로 이끌어주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반면 연민(자비) 수행은 집중은 물론 수행자의 태도와 정신적 상태까지 변화시킨다. "〈디가니까야〉와 이에 대응하는 〈장아함경〉에서는 사선정을 수행자의 '행복'으로, 그리고 사무량심을 수행자의 '부(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전의 미묘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연민을 포함한 사무량심을 함양하는 것은 행복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에 비견할 만한 정신적 상태에 도달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내재된 핵심은 사무량심을 함양하는 것은 다른 정신적 평정보다 뚜렷한 이점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까시나와 같은 대상 또는 호흡을 대상으로 명상하는 것은 물론 집중으로 이끄는 뛰어난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을 획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까시나이든 호흡이든 명상의 대상으로 선택된 특별한 대상은 그 자체로는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해 주는 어떤 실질적인 유익함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연민을 포함한 사무량심은 다릅니다. 깊은 집중으로 이끄는 능력에 더하여, 하나의 무량심이 명상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태도와 정신적 상태에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굴셀건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80ml × 60팩
13만원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법화경 가르침 더 넓은 세상으로”

‘현담 허락 법화경 금니사경 초대전’
불교천태중앙박물관 1월 12일~4월 21일
〈법화경〉 절첩본, 〈화엄경〉 등 총 120여 점 전시



허락 作, 묘법연화경 병풍 14폭.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우측 두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허락 작가(우측 첫 번째)의 안내로 〈법화경〉 금니사경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천태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고려사경연구원과 함께 1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관장 장호) 1층 컨벤션홀에서 ‘현담 허락 법화경 금니사경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금니사경이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 창조하고 사경을 통해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고 있는 허락 작가의 법화경〉 〈화엄경〉 병풍, 〈법화경〉 ‘약찬게’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액자 등 총 120여 점의 금니사경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1월 12일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지고,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우리 종단의 많은 불자들도 이 감동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120여 점의 작품은 예술과 수행, 그리고 기록문화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약 7만 자의 글자와 7점의 변상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묘법연화경(법화경)〉 병풍의 경우 글자 크기가 5mm에 불과하다. 마치 인쇄를 한 것처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간격이 일정하여 작가의 높은 필력에서 비롯된 예술성과 수행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을 계승한 기록문화로서의 가치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허락 작가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화경〉 사경을 해놓고도 다 펼쳐보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었는데, 넓은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 천태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락 작가는 서력 약 60년의 서예가로 1986년부터 금사경 연구와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오랜 실험과 연구를 거쳐 작품의 변형 없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한지와 금가루, 어교(접착제)를 비롯한 금사경 제작기법을 스스로 터득해 〈화엄경〉 절첩본 81권 3회, 〈법화경〉 7권 7회, 〈금강경〉 80여 회, 〈지장경〉 2권 5회 사성으로 30여 년 동안 부처님의 4대 경전을 모두 복원했다. ‘억불’이라는 불운한 시절로 인해 사라져버린 금사경의 의미와 공덕의 가치를 다시 알아보고 아름다웠던 우리 문화의 향수를 그리며 그가 지금까지 받아 적은 부처님의 말씀은 약 250만 자가 넘는다.

‘금사경’이란 경전을 금가루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7세기 당나라에서 시작됐다. 우리 땅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이 조성되며 전성기를 누렸다.

금가루는 먹과는 달리 종이에 두툼하게 묻어야만 발색이 여법하고,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의 효과가 떨어져 소실되기 쉽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고려의 금사경은 당시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인해 금사경의 맥은 끊어지고 관련 문헌 하나 전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작품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번 전시는 사경의 의미와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허락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미협)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조계종) 제19회 최우수상, 제22회 문화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2004년 대한민국종교예술미술제 초대출품, 201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사경전) 초대출품, 2011 대장경천년세계축제(금사경) 초대출품, 2017 법련사 불일미술관 개인전, 2017 한국문화정품관 개인전을 열었다. (043)423-9103

국립경주박물관 신년맞아 새 단장

신라역사관 2실, 월지관(안압지관) 재개관

전면 저반사 유리 채택
LED조명, 면진 시스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이 신라역사관 2실과 월지관(안압지관)을 재개관했다. 2018년 전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관(2018.12.15)했던 신라역사관 2실에 이어 면진 진열장 설치를 위해 휴관했던 월지관(안압지관)을 1월 11일 재개관했다.



재개관한 월지관.

전시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한 이번 재개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전시 감상이 편안해졌다는 점이다. 신라역사관 2실과 월지관(안압지관)에 설치된 면진진열장에는 전면 저반사 유리를 채택했다. 기존에 썼던 일반 유리나 저철분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두께 1cm 기준)이 각각 88%, 91%인데 비해 저반사 유리는 98~99%에 가까워 빛에 의한 어른거림이나 거울과 같은 반사현상이 거의 없다. 조명도 전면 교체하여 문화재감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2월 새롭게 문을 연 신라역사관 2실은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한층 더 충실하게 꾸몄다. 금관총, 황남대총, 천마총 등에서 출토된 2,119점(국보 4건, 보물 9건)의 전시품을 중심으로 마립간 시기의 신라능묘와 화려한 황금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의 국제 교류네트워크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국립경주박물관 대표 문화재인 천마총 금관(국보 제188호)과 금제 허리띠(국보 제190호)를 위한 독립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전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미디어박스를 활용한 도입부 영상, 신라 무덤 분포를 정리한 맵핑 영상, 황금문화재들의 세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디지털돋보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관람의 즐거움을 더하고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 신라역사관은 기원전 57년에서 기원후 935년까지 한반도 동남쪽에 있었던 천년왕국 신라를 만날 수 있는 전시관이다. 신라의 건국과 번영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황금의 나라, 신라’를 조명한다.

주요 전시품은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국보)과 금제허리띠(국보), 조익형관식(국보), 흉식(보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제 고배(보물), 금제허리띠(보물) 등이다.

월지관은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된 3만여 점의 통일신라시대 문화재 중에서 엄선한 약 3백여 점의 문화재를 주제별로 전시하여 통일신라 문화, 특히 왕실의 생활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라의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기와, 광배와 금동아미타삼존판불좌상 등의 불교조각품과 당시 궁궐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금속제 접시, 완, 숟가락과 토기, 중국 당(唐)에서 만들어진 청자와 백자와 그 외 목간, 건물을 장식하는 금속공예품, 곱돌로 제작된 장식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경주박물관은 2019년에도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간다. 올해는 신라의 건국과 성장을 다루고 있는 ‘신라역사관 1실’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국제불교무용대전 참가자 모집

2월 1일까지 접수 마감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5회 국제불교무용대전(IBDF) 참가자를 2월 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불교를 소재로 하며 폄훼 없는 모든 무용의 발표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전공, 비전공 구분 없음)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전통과 창작 분야(현대, 발레, 한국 등 모든 장르) 단독 및 합동공연(단독공연 50분 이상 작품 / 합동공연의 경우, 개인-10분 이상으로 구성된 작품, 듀엣 이상 단체-15분 이상으로 구성)이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 출연자 및 스텝 명단 1부, 작품사진 및 프로필 사진, 동일 공연의 비디오 자료이다. △접수는 이메일(buddhistdance@hanmail.net/파일명-2019 국제불교무용대전 공모)로 한다.

비디오 및 서류심사(예선)후 4월 5일부터 28일까지 성균소극장에서 본선, 5월 6일 성균소극장에서 결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 (02)747-5035. 박재완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시민 문화강좌 연다

2019년 상반기 전통문화강좌 개설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전통문화강좌를 개설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3월 2일부터 ‘2019년 상반기 문화강좌’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화와 단청, 서각, 드로잉소묘, 전통사경, 생활자수, 전통손비누, 전각 등이다. △불화는 조해종 불모가 담당한다. 조해종 불모는 20년 동안 수강생을 지도하고 이끌어오고 있다. △단청은 홍관식 작가가 담당한다. 홍관식 작가는 수업을 통해 기초부터 작품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외 서각은 서용수 작가, 드로잉소묘는 김명수 작가 등 전통문화 장인들이 강의를 직접 담당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8개의 문화강좌를 통해 찬란한 불교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동참과 관심을 독려했다. 문화강좌 신청은 2월 28일 까지 선착순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tongdomuseu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초기 승가, 어떻게 건강 다스렸나

초기불교의학 관련 연구 논문 2편 '눈길'

'율장 나타난 약이 되는 음식'
율장 기술된 藥食에 대해 분석
아유르베다와 불교의학 비교
수행자 위의 고려해 치료 반영
부처님도 상당한 의학지식 가져

'진기약에 관한 일고찰'
병 걸린 비구 복용하는 진기약
최소 소유토록 한 율장 바탕하고
인도 전통 요료법에 뿌리를 둬
치료보단 예방에 주된 활용 추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이 든다. 이는 부처님도 스님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율장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섭취하는 약과 음식에 대해 기술해 놓고 있다. 일종의 '불교의학'으로 이를 전문 연구한 논문이 최근 잇달아 발표됐다.

〈한국불교학〉 제88집(2018)에 수록된 한수진(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연구논문 '율장에 나타난 약이 되는 음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초기불교 당시 수행자들이 섭취한 약식(藥食)을 율장에 근거해 분석했다. 해당 논문은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한수진 씨는 율장을 통해 약을 복용시간과 저장 기간을 나눠 시약(時藥) · 비시약(非時藥), 칠일약(七日藥) ·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각각 구분했다.

시약은 걸식을 통해 얻는 것으로 주로 일상 식재료의 음식이며, 비시약은 과일이나 즙 등 일종의 간식이었다. 칠일약은 우유나 버터, 제호(치즈) 등 유제품을 의미하며, 진형수약은 평생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약으로 뿌리 채소, 소금 등이 주를 이룬다.

한수진 씨는 "시약과 비시약은 수행자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이면서 음식이었다"면서 "아유르베다에도 많은 효능이 있다고 기술된 버터, 유지, 꿀 등을 칠일약으로 분류해 7일간만 섭취토록 한 것은 맛있는 음식으로 식탐을 불러일으켜 수행에 방해가 되고 과도한 섭취 시 병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수진 씨는 율장에 나타난 질병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인도는 몬순기 후로 안거 후 수행자의 체력이 고갈되는 '가을병'이라는 풍토병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유제품, 꿀 등을 섭취했다. '풍병'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리불도 앓았던 병이다.

저자는 "참깨, 멥쌀 등 곡물에 세 가지 매운 맛 채소를 넣어 만든 삼신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풍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음식"이라며 "초기불교에서 병의 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 역시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불교의학과 아유르베다는 병과 약의 효능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초기불교의학에서는 나름의 치료법을 활용해 불교의학을 정립하고 있다"며 "아유르베다가 고대 인도의학을 하나로 정립한 의학이라면 초기불교의학은 '부파불교의학'의 집대성"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인(동국대 인도철학 박사과정 수료) 씨의 연구논문 '진기약(陳棄藥)에 대한 일고찰'은 출가비구가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약으로 알려진 '진기약'의 의미 등을 분석했다. 이는 〈불교학연구〉 제57호(2018)에 수록됐다.

진기약은 율장에서 사의법(四依法) 관련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가 사문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인 사의법은 분소의(衣), 걸식(食), 수하좌(住), 진기약(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기약은 "출가사문이면 반드시 지녀야할 물품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약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기약을 언제, 얼마큼 복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 진기약의 성분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소의 분뇨'다. 이 역시 불교 전래 과정에서 오역되고 전해져 각각의 처방이 달랐다. 저자는 7세기 당나라 구법승 의정이 저술한 〈남해귀내법전〉을 주목했다. 이는 의정이 실제 인도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정리한 율서(律書)로 전체 40장 중 1장을 진기약에 할애했다.

의정은 진기약의 어원을 분석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푸티묵타바이샤쟈(pūti-muktabhaiṣajya)'라고 한다. 포제(pūti)를 분석하면 '썩은 냄새(腐臭)를 풍기다'라는 의미인데 '진(陳-오래되다)'에 해당되며, 목저(mukta)는 '풀어놓아진, 떼어버려진'이라는 의미로 '기(棄-버리다)'를 상징한다. 비살사(bhaiṣajya)는 '약(藥)'을 의미해 단어 전체를 의역하면 진기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진기약은 인도 전통의 '요료법(尿療法)'에 근간한다고 봤다. 양경인 씨에 따르면 율장에서 소의 분뇨를 정화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황달과 같은 특정한 질병에는 복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약건도〉에서는 소의 오줌과 미로발란(가자나무 열매 말린 것)을 섞어 먹으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인도의 요료법을 적용한 예"라는 것이다.

양경인 씨는 "진기약의 실체는 가장 기본적인 '소의 오줌' 자체"라면서 "진기약에 등장하는 발효라는 거창한 법제가 아닌 진기의 의미를 살린 '오래 묵힌 소의 오줌'이라 추정된다"고 봤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진기약이 최소한의 물품을 소지하고 그에 의지하던 수행자의 것"이라며 "고가의 약제를 섞은 약을 지니고 처방하는 의미보다는 아유르베다의 전통에 입각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균형이 깨졌을 때 예방하는 용도로 지닌 약"이라고 설명했다.

간월사지 석탑 등 울산 유형문화재 지정

울산시, 유형문화재 2건
1월 10일 신규 지정고시

울주 간월사지 석탑과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간월사지 남 · 북 삼층석탑(유형문화재 제38호)',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일괄(유형문화재 제39호)' 등 2건을 유형문화재로 1월 10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간월사지 남 · 북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으로, 초층 탑신 중앙에 커다란 문비(門扉)를 두고 좌우에 문을 지키는 수호신인 권법형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석탑의 기단부의 일부와 2층 탑신이 결실되어 새로운 부재를 보강하여 복원되긴 했으나, 기단의 짜임새와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 방식이 뛰어나 신라석탑의 우수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간월사지 남탑(사진 왼쪽)과 북탑(사진 오른쪽)의 모습.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일괄'은 본존불인 아미타여래좌상과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불상들에서 발원문, 후령통과 오보병, 묘법연화경 등이 확인됐다.

본존불은 1649년 조각승 영색에 의해, 좌우의 보살은 이 보다 늦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혜희 계보의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미타여래상은 넓은 다리 폭의 신체 비례, 개성 있는 얼굴, 독특한 수인 등 17세기 불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2구의 보살상은 큰 얼굴에 큼직하게 코를 새긴 것과 옷주름을 날카롭게 새긴 것이 특징이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일괄'은 서로 시기를 달리해 조성됐지만, 봉안처와 조성자가 분명한 아미타여래상과 독특한 수인 형식을 가진 보살 등 삼존불의 구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울산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14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유형문화재는 36건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흥사 중수 역사 '한눈에'

동국대 ABC사업단, '사지자료집5 대흥사 편' 발간

해남 대흥사 중수 역사와 사찰 소임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지자료집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이하 ABC)사업단은 〈사지자료집5 대흥사 편- ⑤ 중수기 · 소임 관련 · 승보안〉을 간행했다.

이번 대흥사 편은 전남 담양의 용흥사에 소장되어 있던 대흥사 고문헌을 본 사업단이 발굴해 소개하는 것으로, 출간한 〈사지자료집5〉는 중수기와 소임 관련 · 승보안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제5권에 수록한 중수기는 대흥사의 전각 및 부속 암자의 중수와 관련된 기록이며, 소임 관련 문서는 대흥사에서 소임을 맡았던 사람의 인명을 기록한 것이다.

승보안은 대흥사에서 처음으로 수계한 승려들의 명단과 수계 연도를 기록했다. 승보안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대둔사에서 자체적으로 수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서 조선시대 불교 교단을 파악하는 데 주목할 만한 자료다.



한편, 동국대 ABC사업단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소장된 귀중한 불교문헌을 조사하고 가공해 서비스하는 일련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기록문화 연구 현황 · 과제 논한다

불교학연구회, 1월 25~26일

불교기록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월 25~26일 금강대에서 '천년을 이어온 불교기록문화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도어 사본 연구 현황과 과제(이영진, 금강대)'를 비롯해 '고려 · 조선시대 불교문헌 필사본의 경향과 특징(남권희, 경북대)', '조선후기 연담과 인악의 화엄십지사기 비교(승범 스님, 동국대)' 등 연구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산스크리트어와 고려 · 조선시대 필사본, 사기를 중심으로 불교기록문화 연구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또한, 26일에는 갑사와 마곡사 성지 순례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보존과학' 20집 발간
최신 연구논문 7편 수록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박물관 문화재 보존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수록한 전문 학술연구지인 〈박물관 보존과학〉제20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제20집에는 백제시대 금동관(金銅冠)의 제작 기법을 연구한 이영범(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익산 입점리 1호분 출토 금동관의 제작 기법 연구'와 고대 금속의 상감 기법을 연구한 최기은(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고대 금속 선상감(線象嵌) 기법의 쟁점과 그 해석',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금강사지(金剛寺址) 치미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을 연구한 황현성(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금강사지 치미의 형태적 특징 및 제작기법 비교 연구' 등 7편의 보존과학 논문이 수록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보존처리와 제작 기법을 연구한 논문과 자료를 수록했다. 문화재 보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학술지의 논문 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② 대한(大寒)
절집만두 · 절집떡국 · 김치메밀전병

절집 손맛 따라 색다른 만두

대한(올해 양력 1월 20일)은 음력절기로 섣달에 해당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다. 그래서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처럼 소한의 추위가 절정이고 대한 무렵이 되면 날씨는 다소 포근해진다.

깊은 동안거가 막바지에 이르는 무렵, 사찰은 안팎으로 살림 정리를 시작한다. 후원에서는 묵은 나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서 정월 보름까지 먹을 것을 남긴다. 봄이 되면 광대나물, 냉이, 머위부터 나물들의 땅오름이 시작된다.

대한 역시 소한의 맛의 연장이지만 결제중인 선원이나 대중처소에서는 만두를 자주 빚는다. 절집만두는 묵은지를 넣은 아주 간단한 만두부터 다채로운 소를 넣은 만두까지 다양하다. 지역마다 절집손맛에 따라 다르지만 김치와 두부, 당면, 버섯, 시금치, 당근, 양배추와 호박을 넣고 만든다.

만두소는 둘째 치고 만두피를 만드는 일은 가장 수고롭다. 한때는 만두피를 시중에서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냉동보관 된 만두피로 만두를 맛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웠기에 반죽을 직접 하게 됐다. 밀가루 귀한 시절을 지나 지금의 만두 만드는 형편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떡국 역시 자주 상에 오르는 음식이다. 국물내기가 쉽지 않아서 갖은 노력을 해서 맛국물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처럼 마른 표고버섯이나 다시마가 흔치 않던 시절, 오로지 집간장과 무끓인 물로 맛을 내야했기에 공양간서 떡국 끓이는 날이면 소임자들의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절집만두

잘 익은 김치와 메밀가루, 무로 만드는 김치메밀전병 역시 이 절기에 딱 맞는 음식이다. 기름기 없이 팬에 구워내는 전병은 뒤집지 않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무는 들기름에 잘 무쳐서 센불에 덖는 일이 중요하다. 너무 익혀도 안 되고 설익으면 맛이 부족하다.

세상 수많은 음식 중에 남의 살이 내 밥상에 오르지 않는 즐거움만한 일이 있겠는가? 어느 세상에 태어나도 빚을 지지 않는 생명살림공덕은 넘쳐도 당당하리라.

절집만두
두부 1모, 마른표고 4개, 유부 5장, 숙주 80g, 묵은지 80g, 시금치 50g, 당근 40g,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참기름 적당량, 집간장 적당량, 통깨 · 소금 · 후추약간
만두피 : 강력분 2컵, 찹쌀풀물 150㎖(찹쌀가루2큰술, 물 2컵을 넣어 끓인다), 올리브유 2t, 소금 약간 (덧가루용 밀가루1/4컵)

1. 두부를 베보로 싸서 으깨면서 물기를 짠 뒤 참기름과 소금, 후추를 넣어 밑간하다.
2.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짜고 다진 뒤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밑간해서 덖어준다.
3. 유부는 끓는 물에 두 번 데쳐내어 기름기를 제거하고 물기를 짠 후 다진 후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해서 볶는다.
4. 숙주와 시금치는 삶아서 물기를 짠 뒤 다져서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무친다.
5. 당근과 청, 홍고추도 다진 뒤 참기름을 두른 팬에 덖어낸다.
6. 묵은지는 김치소를 털어내고 물기를 꼭 짜서 참기름


절집떡국


김치메밀전병

과 통깨를 넣고 중간불에서 아삭하게 익혀준다.
7. 준비한 재료가 다 식으면 섞어서 약간 치대듯이 만두소를 만든다.
8. 만두피는 찹쌀풀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 밀가루를 채에 곱게 내린 후 만두피 재료를 섞어서 반죽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30분정도 숙성시킨다.
9. 숙성된 만두피를 가래떡모양으로 굴려서 잘라 덧가루를 뿌린 후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든다.
10. 빚은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어 만두를 빚는다.
11. 김이 오른 찜솥에 20분 정도 빚은 만두를 쪄낸다.

절집떡국
떡국떡 2컵, 채수 5컵(마른표고20g · 다시마20g), 사각유부 4개, 은행 10알, 밤 2개, 시금치 30g, 당근 30g, 포두부 1팩, 가죽대 말린 것 10g, 무 50g

1. 포두부 2장은 치자물에 3시간가량 담가 노란 물을 들인다. 노란색과 흰색 포두부 2장씩 각각 채 썰어 참기름과 소금 간을 해서 팬에 덖는다.
2. 솥에 물 7컵을 부어 무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마른표고, 다시마, 가죽대 말린 것을 10분간 끓인 후 건더기를 건져내고 집간장 1큰술을 넣어 국물을 만든다.
3. 유부는 끓는 물에 2번 삶아 찬물에 헹군 후 채 썰어 집간장, 참기름으로 밑간해 덖어준다.
4. 국물에서 건져낸 표고버섯은 채 썰어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간을 해서 센불에 볶는다.
5. 은행은 마른 팬에 덖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밤은 편썰기해서 팬에 굽는다.
6. 시금치는 씻어서 2cm로 자른다.
7. 국물에 떡을 넣고 익힌 다음 시금치를 넣고 익힌다.
8. 그릇에 떡을 건져내고 국물을 부은 다음 고명을 얹는다.

김치메밀전병
김치 1컵, 메밀가루 1컵, 무 100g

1. 김치를 잘게 채 썬다.
2. 메밀가루는 물에 갠다.
3. 무는 곱게 채 썰어 들기름에 무친 다음 팬에 덖는다. (물기가 없도록)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메밀을 한 국자 펴놓은 다음 팬을 들어 둥글게 원을 그리며 팬에 메밀옷이 잘 펴지도록 전병을 구워낸다.
5. 접시에 메밀전병을 펴놓고 김치와 무를 넣고 돌돌 말아서 썬 다음 접시에 담는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② 조기폐경

조기 폐경, 정신적 치료도 함께

지난해 이른 봄, 유럽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분이 입국하여 육아피로와 산후풍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3년간 월경이 끊어져 난소기능의 문제로 부친과 함께 내원한 적이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의 갑작스런 사망 충격과 누적된 과로 등이 '조기난소부전'을 일으켰던 것이다.

조기난소부전은 40세 이전의 여성에서 월경이 6개월 이상 없고, 기능을 멈춘 난소가 난자와 여성호르몬을 제대로 만들도록 채근하기 위해 뇌하수체의 성선자극호르몬은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분비량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그 환자는 1년 가까이 한약치료와 침치료를 통해 배란과 월경을 회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환자는 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게 된다. 갑자기 청혼을 받은 그 환자는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자신이 결혼하면 임신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 나는 "지켜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후 그 환자는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왔었다. 그 환자가 출국하고 나서는 친정 부친이 해외로 보내기 위한 처방을 두 번 정도 받아갔는데, 그 때 부친으로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있다는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육식섭취의 급증, 환경호르몬 노출, 다양한 스트레스 등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내분비기능이 혼란을 일으키고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빨리 끊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관련 질병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만혼이나 비혼주의가 늘면서 역설적으로 40세 이후에도 생식내분비 기능을 유지하고 젊음을 지키려는 욕구는 더 강해지고 있다.

폐경은 여성이 생애 마지막 월경을 마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만 49.7세인데, 40~45세 사이에 폐경이 되면 '이른 폐경'이라 하고, 40세 이전에 폐경 상태가 되면 '조기난소부전' 혹은 '조기폐경'이라 한다. 이렇게 진단 받은 사람 중의 일부는 월경이 재개되기도 하고, 이 가운데 소수는 앞서 언급한 환자처럼 월경과 임신 기능까지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기난소부전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조기난소부전은 40세 이전에 6개월 이상 월경이 내조하지 않는 경우에 임상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기난소부전 환자의 대부분은 실제로 40세 이전에 폐경이 된다. 그러나 완전히 폐경된 것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전의 무월경에 안면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난소에서 난포를 키우고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들이 증가된 소견이 있을 때 일차적으로 임상적인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난소 조직에 대한 검사를 통해 난자의 재료와 생산지가 되는 난모세포나 난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기에 폐경이 된 것으로 확진할 수 있다.

40세 이전 무월경 6개월 이상
한약 · 침치료로 배란 · 월경 회복
자극 음식 삼가, 규칙적인 운동해야

한의학의 입장에서 조기난소부전은 선천적인 생기기능의 허약과 후천적인 체력저하, 영양불균형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환으로 인식된다. 국내연구 보고에 따르면, 조기난소부전 환자 125명 중 원인불명 69명(54.8%), 수술과 항암치료에 의한 경우 37명(29.4%), 자가면역질환 12명(9.5%), 염색체 이상 7명(5.5%) 등의 원인 분포를 보였다.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는 약 100명당 1명꼴로 보고 있고, 30대 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는 1,000명당 1명꼴로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100명 중 1명은 조기 폐경에 이르는 것인데, 요즘 자가면역질환과 암 발생의 증가, 다이어트의 남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상인 현실로 인해 조기난소부전이건 확정된 조기폐경이건 모두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난소기능소실은 대개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결국 폐경에 이르게 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난소기능의 소실이 자연적으로, 또는 화학요법 및 수술에 의해 예상보다도 급속히 초래된다.

조기난소부전 혹은 조기 폐경은 정상적인 폐경보다 안면홍조와 근골격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임신 능력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호르몬 농도가 감소되어 생식기관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골다공증이 초래되며,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진료의 기본적인 목표는 난소기능의 회복과 여성호르몬 결핍을 관리하면서 자존감 저하 및 상실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의치법은 우선 생식기능의 강화를 통한 난소기능 회복(보신조경補腎調經)을 중심으로 환자의 특성에 맞는 한약과 침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체계를 정상화시키며, 다양한 증상을 개선시킨다. 만약 한의치료에 의한 배란과 월경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호르몬대체요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폐경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자연폐경 연령까지 여성호르몬의 투여를 권고한다.

조기 폐경이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폐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신적 치료 역시 중요하다. 아울러 자극이 강한 음식, 카페인 음료, 술, 담배를 멀리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일반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력 운동을 배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골밀도 유지를 위해 제자리 뛰기 등과 같은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권고한다.

질 건조증이 심해 성생활이 곤란하면 에스트로겐 연고나 좌약을 사용한다. 골다공증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도록 한다. 마흔이 되기 전에 생리가 끊어졌다면 한의사의 치료와 양의사의 치료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병원장〉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라즈기드-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
담불라-시기리야-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라오스/베트남 6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